

연구보고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권해수(조선대학교·교수)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자립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 이를 위해 첫째, 학교중단 청소년 현황과 학교중단의 영향요인 및 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 둘째,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취업자립 정책 및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 셋째,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의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중 취업자립에 관한 욕구, 실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봄.
- 넷째, 사례조사를 통해 학교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 기존 연구, 통계, 현황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 부분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

2. 주요 연구내용

- 첫째, 2009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률은 97.9%, 중학교 취학률은 96.2%, 고등학교 취학률은 92.5%임. 2009년 현재 초등학교→중학교 진학률은 99.9%, 중학교→고등학교 진학률은 99.6%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0.4%를 차지하고 있음. 2009년 현재 졸업률은 초등학교 99.1%, 중학교 97.8%, 고등학교 94.7%(일반계고 96.4%, 전문계고 90.2%)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2.2%,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5.3%(일반계고 3.6%, 전문계고 9.8%)에 달함. 2009년 현재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0.5%, 중학교 1.0%, 고등학교 1.8%(일반계고 1.1%, 전문계고 3.8%)임.
- 둘째, 선행연구 분석결과 가정관련요인(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 가족구조상의 결손, 경제적 빈곤(낮은 SES),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지의 약화), 지역사회관련요인(중도탈락을 자극하는 유해환경, 대중문화의 확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미약, 또래집단의 부정적 영향), 학교관련요인(교육과정의 획일성, 학교공부의 지루함,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성원간 친밀감 부족, 입시·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이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학교생활에서의 좌절감 및 소외감,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업에 대한 동기·의욕의 부족, 학교 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쳐 학교 중단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음. 학교 중단 이후 적응유형에 따라 학교중단 청소년을 정착형(대안 교육 진학 및 진학 준비형, 취업형, 직업 훈련 및 취업 준비형, 복합 정착형), 비정착형(시설수용형, 방치비행형, 방치은둔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음.

- 셋째,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 행정부처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학교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전망 구축에 치중하고 있다면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학교를 떠난 학교중단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통합·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이며 현재 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만 15~29세의 취약청년 대상), 중소기업 인턴제(만 15~29세의 취약청년 대상),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상),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빈곤 청년의 개인별 근로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자활인큐베이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법무부의 학교중단 자립 정책은 범죄청소년을 수용·보호하여 비행을 단절·예방하며,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술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음.
- 넷째, 정규학교에서 이탈한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특별한 진로 준비 과정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불완전한 취업에 노출되어 있었음.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기관 소속유무에 관계 없이 진로 준비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나 지도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음.
- 다섯째, 사례조사결과 학교중단 청소년이 지적한 학교중단청소년 취업자립지원 개선방안으로는 양질의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 직업훈련시설 커리큘럼의 다양화, 여성에 대한 고려 확대, 진로탐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취업자립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학교중단 청소년이 원하는 형태의 시설·프로그램 변화 필요, 진로개발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 활성화,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취업자립방향 마련 필요, 취업자립정보에 대한 홍보의 확대, 취업자립지원기관 교육 기간의 장기화,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 등이 있었음.

3. 정책제언

● 실천적 개선방안을 프로그램 차원과 지역사회 차원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프로그램 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학교중단청소년 초기 개입 프로그램 강화,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기관에서의 진로지원기능 강화, 전문화·차별화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1:1 멘토링 서비스 강화,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지원 정책에서의 사전 직무훈련과정 혹은 취업기초능력습득 과정 마련, 직업훈련기관 시스템 개선,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장기화 등이 있음.
- 둘째, 지역사회 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학교중단 청소년 전용공간 및 시설 확보, 학교중단 청소년의 지역사회 아르바이트·취업 알선 체계 강화, 지역사회 민간기업 및 단체의 참여 및 지원, 실력에 기반한 취업 풍토의 조성: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제한의 철폐, 지역사회 인사를 활용한 직업역량개발 전문 인력풀 구성, 지역사회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음.

-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학교중단 청소년 교육·직업·진로 정보망 강화, 기존 학교중단 청소년 관련정보의 홍보강화,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기조 및 서비스의 다양화, 빈곤가정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개별적·단계적 취업지원 정책 마련 필요, 학교중단 청소년 기본학력 증진 정책 수립, 부처차원의 취업지원정책의 체계적 연계 시스템 구축, 직무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최저 임금제 적용,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지원 정책 효과성 평가 지표 마련,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폴리텍(POLITEC) 대학이나 전문대학 진학 가능한 학력인정, 청소년만을 위한 직업훈련 인턴십종합센터의 개설 및 운영, 지원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책 마련 등이 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1) 국내·외 선행연구 및 행정관련 자료 고찰	5
2) 사례조사를 통한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지원방안 도출 및 제안	7
3.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내 행정자료 고찰	7
2) 전문가 자문	7
3) 사례조사	8
4.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8
II. 학교중단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1
1. 학교중단 청소년 현황	13
2. 학교중단의 영향요인 및 과정	20
3. 소결	25
III. 국가차원의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정책	27
1. 학교중단 청소년 관련 법령	29
2.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정책 동향	31
3. 소결	70
IV.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욕구 및 현황	73
1.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관련 욕구	75
2.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관련실태(현황 및 문제점)	83
3. 소결	89

V.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관련 사례 조사 결과	91
1. 연구방법	93
2.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개선방안	94
3. 소결	117
VI. 정책제언	119
1. 실천적 개선방안	124
1) 프로그램 차원의 개선방안	124
2) 지역사회 차원의 개선방안	130
2. 정책적 개선방안	133
참고문헌	143

표 목차

<표 II-1> 2000년-2009년 취학률 추이	14
<표 II-1> 2000년-2009년 진학률 추이	15
<표 II-3> 2000년-2009년 졸업률 추이	16
<표 II-4> 2000년-2009년 학업중단율 추이	17
<표 II-5> 학생변동상황(2008.3.1-2009.2.28)	18
<표 II-6>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추이	19
<표 II-7> 이숙영·남상인·이재규(1997)의 학교중단 과정	21
<표 III-1> 학교중단 청소년관련 법령	29
<표 III-2> CYS-Net 운영지역 및 서비스 이용인원	34
<표 III-3> Help Call 1388 청소년상담 실적	36
<표 III-4> 두드림존 프로그램 구성	40
<표 III-5> 2009년 두드림존 사업실적	41
<표 III-6> 시도별 Wee project 설치·추진 현황	43
<표 III-7> 뉴스타트 대상별 판단 기준	49
<표 III-8>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단계별 세부 내용	51
<표 III-9> 잡스쿨 1박 2일 프로그램 세부 내용	56
<표 III-10>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세부 내용	58
<표 III-11> 취업희망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소개 ..	60
<표 III-12>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의 추진 체계	63
<표 III-13>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67
<표 III-14> 청소년자립생활관 현황	68
<표 III-15> 자립생활관 자립지원 프로그램	69
<표 IV-1>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상황과 사회적인 요구	79
<표 V-1> 사례조사 참가 학교중단 청소년 세부사항	93

그림 목차

[그림 II-1] 김혜영(2002)의 학교중단과정	22
[그림 II-2] 학교중단의 원인 및 학교중단 이후의 경로 개요도	23
[그림 II-3] 박현선(2003)의 학교중단 청소년의 학교중단이후 적응과정	24
[그림 III-1] CYS-Net 체계도	33
[그림 III-2] 위기청소년 상담지원체계 흐름도	35
[그림 III-3] 두드림존 추진체계	38
[그림 III-4] 두드림존프로그램 단계별 모형	39
[그림 III-5] Wee project 체계도	45
[그림 III-6] Wee center 체계도	46
[그림 III-7] Wee Center 서비스 네트워크	47
[그림 III-8] 청년인턴제 사업추진체계	53
[그림 III-9] 자활인큐베이팅 흐름도	61
[그림 III-10] 청년인큐베이팅 사업 내용	6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규학교에서의 교육(수준)은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 만 현실적으로 보다 나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Becker, 1964; 이경상·조혜영, 2005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보다 높은 임금과 좋은 근무여건의 일차 노동시장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의 이차 노동시장으로 이중분할 되어 있으며 한국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은 보다 나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자신의 꿈을 쫓아 혹은 정규학교가 싫어 혹은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¹⁾은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좌절하거나 복교를 선택하거나 검정고시나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길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의 학교중단 청소년정책이 학력인정 대안학교 확대 및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력 취득을 독려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매년 7만명 이상 발생하는 학교중단 청소년 중 학교에 복교하는 비율은 14%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보건복지가족부, 2009) 검정고시나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을 통

1) 일반적으로 취약청소년은 빈곤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교중단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을 포괄한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취약 청소년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대상별로 심도 깊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 정책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해왔던 학교중단 청소년을 주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 중 상당부분이 이와 동시에 취업이나 창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중단 청소년 7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서정아·권혜수·정찬석(2006)에 따르면 학교중단 청소년 중 간과할 수 없는 비율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들 청소년은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진로, 취업자립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정규 학교 중단으로 1차적인 취업 장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학교중단 이후에 부족한 취업자립지원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학교중단 청소년의 규모가 급증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취업자립에 대한 연구와 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국가의 정책 또한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적 상황에 발맞추어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학위취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취업자립을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 및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합동 대책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취업자립지원정책은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처간 연계 또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자립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는 학교중단 청소년들에게도 보통의 청소년들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집중적이며 장기간에 걸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한 직업선택 안내, 지도, 훈련이 필요하며(Grobe et al., 2001) 진로와 관련된 욕구에 부응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법(holistic approach)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Kerka, 2003; Soto, 2004; 최동선·이상준, 2009에서 재인용). 그리고 그들에게 학교중단 이후의 건설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 ‘진로개발’의 관점이 포괄적인 지원 방안의 중요한 핵심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바탕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첫째,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학교중단 청소년 현황과 학교중단의 영향요인 및 과정에 대해²⁾ 간략히 정리한다. 둘째,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취업자립 정책 및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의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중 취업자립에 관한 욕구, 실태(현황 및 문제점),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사례조사를 통해 학교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학교중단 청소년에 관한 연구 내용 중 취업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취업지원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 분석하고 이에 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연구가 제시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이 필요한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해 보다 발전된 형태의 실질적 도움을 제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1) 국내 · 외 선행연구 및 행정관련 자료 고찰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지원의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확립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 외 선행연구는 물론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통계청 등의 국내 행정관련 자료, 최근 기사, 보도자료 등을 고찰하였다. 국내 행정관련 자료는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능한 최근

2) 단,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는 학교중단 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학교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바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각 연구자가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분석 내용 중 두드러지는 내용과 최근 학교중단 청소년 현황을 통계치 수준에서 살펴보는 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현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³⁾.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내 행정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중단 청소년 관련 현황, 영향요인 및 과정 파악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가차원의 통계자료를 통해 (가) 학교중단 청소년 현황, (나) 학교중단의 영향요인 및 과정에 대한 논의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학교중단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어 생략하였다⁴⁾.

(2)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국가차원의 취업자립 정책·체계 파악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의 행정관련 자료와 최근 기사, 보도자료 등을 살펴보고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국가차원의 취업자립 정책 및 관련 체계를 살펴보았다.

(3)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관련 욕구, 실태 파악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연구보고서와 실태조사 연구, 심층면접보고서 내용 분석을 통해 (가)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자립 관련 욕구, (나)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자립 관련 실태(현황 및 문제점 등), (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학교중단 청소년관련 취업자립 개선 제시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3) 주로 활용한 자료로는 2010년 업무추진계획, 2009년 업무보고, 2009년 백서 등이 있다.

4) 학교 중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논의는 서정아·권해수·정찬석(2006)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한국청소년개발원,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및 최동선·이상준(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사례조사를 통한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지원방안 도출 및 제안

학교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를 통해 이들의 취업자립관련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취업자립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⁵⁾.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내 행정자료 고찰

각종 국가통계자료, 행정자료, 논문, 신문기사, 학술보고서 등을 통해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 및 정책방향, 도출된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 방향의 수립 및 세부연구내용 확정,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자립 지원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1회차는 실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연구의 방향성 수립 및 세부연구내용 확정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2회차는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으로 결과 보고서 작성 전에 이루어졌다. 자문진은 공무원 1명, 학계전문가 2명, 현장전문가 2명 내외로 구성하였다.

5) 이 과정에서 이들을 지도·교육하는 지원인력에 대한 사례조사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본 사례조사의 주목적인 만큼 연구의 명료성을 위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3) 사례조사

문헌고찰 결과 도출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은 총 10명이며 기관의 협조를 얻어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및 이동쉼터, 소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학교중단이후의 취업·진로관련 인식·경험은 물론 이들이 생각하는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본 연구는 주어진 시간과 예산에 최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로 기존 연구, 통계, 현황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자립관련 현황과 욕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대규모 연구에서와 같은 별도의 학업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실태조사 및 욕구파악, 심층면접, 다양한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한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개선사항 도출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계, 정책,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중단 청소년의 현황, 영향요인 및 과정, 국가차원의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정책, 취업자립 관련 욕구, 관련실태(현황 및 문제점), 개선제시사항 및 개선사항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학교중단 청소년과 관련하여 학업자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이루어져 왔던 취업자립에 대해 초점을 맞추므로써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에 이루어져왔던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 자립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자료 및 행정관련 자료, 통계자료를 정리, 요약해 봄으로써 기존 연구가 제시하

고 있는 의미 있는 개선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보다 심화되고 발전된 형태의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 자립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사례조사를 통해 학교중단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가, 학자의 입장이 아닌 실제 당사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Ⅱ. 학교중단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학교중단 청소년 현황
2. 학교중단의 영향요인 및 과정
3. 소결

II. 학교중단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학교중단 청소년 현황

초·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연령임에도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본 연구에서는 ‘학교중단 청소년’ 이라고 지칭한다⁶⁾. 여기에서 의미하는 학교중단은 정규학교에 재학하였다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뿐 아니라 정규학교에 재학할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취학을 하지 않았거나 진학을 하지 않아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교육통계상의 ‘학교중단자(학업중단자)’의 수는 정규학교에 재학했다가 학교를 그만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학교중단자 수치에는 미취학자나 비진학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중단자’ 수치만으로 파악할 경우 실제적인 ‘학교밖 청소년’의 수가 과소 추정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학교중단 청소년 수는 정규학교 재학중 중단자(교육통계상의 학교중단자)는 물론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거나, 상급학교(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교육통계상의 학교중단자수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초·중·고등학교의 취학률과 진학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⁷⁾.

6) 반면 교육통계에서는 본 연구의 ‘학교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학업중단자’라는 용어를 활용한다. 이에 교육통계를 인용하는 부분에 한해 통계상의 ‘학업중단자’라는 용어가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7) 단, 취학하지 않거나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학교중단 청소년으로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는 최근 들어 해외취학, 진학 등으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취학 또는 진학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초·중·고등학교 취학률 추이(2009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http://cesi.kedi.re.kr>)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2000년-2009년 취학률 추이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초등학교	97.2	98.8	98.8	99.3	99.0	97.9
중학교	95.0	94.6	96.2	96.0	93.2	96.2
고등학교	89.4	91.0	90.3	91.3	90.0	92.5

* 출처: 2009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http://cesi.kedi.re.kr/publ/publ_yrbk_frme.jsp?menuid=5, 2010. 9. 30 검색

* 주: 1) 취학률=(취학적령 재적 학생수/취학 적령 인구)x100

2) 취학 적령 인구는 통계청(2006.11)의 '장래 인구 추계를 기준하였음. 2005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잠정 추계치이므로 다음 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3) 취학 적령은 초등학교는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18-21세임.

4) 2009년 초등학교 취학적령 기준이 변경되어 취학률이 다소 낮게 나타남.

5) 고등학교에는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가 포함됨.

2009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률은 97.9%, 중학교 취학률은 96.2%, 고등학교 취학률은 92.5%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취학률 추이를 고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계속 증가하다가 2009년에 약간 감소했음을 알 수 있으며 중학교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역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청소년의 2.1%, 중학교 취학연령 아동·청소년의 3.8%, 고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청소년의 7.5%는 해당 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11)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연령인구(6-11세)는 3,462천명, 중학교 취학연령인구(12-14세)는 2,024천명, 고등학교 취학연령인구(15-17세)는 2,066천명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즉,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있는 아동·청소년 중 약 73천명, 중학교 취학연령에 있는 아동·청소년 중 약 77천명, 고등학교 취학연령에 있는 아동·청소년 중 약 155천명이 국내 정규학교에 재적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진학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현재 초등학교→중학교 진학률은 99.9%, 중학교→고등학교 진학률은 99.6%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진학률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중학교 진학률은 고르게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고등학교 진학률은 약간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표 II-2> 2000년-2009년 진학률 추이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초등학교 →중학교	99.9	99.9	99.9	99.9	99.9	99.9
중학교→ 고등학교	99.6	99.7	99.8	99.6	99.7	99.6

* 출처: 2009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http://cesi.kedi.re.kr/publ/publ_yrbk_frme.jsp?menuid=5, 2010. 9. 30 검색

* 주: 1) 진학률=(당해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연도 졸업자)x100

2)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4) 고등학교에는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가 포함됨

다음으로 졸업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현재 졸업률은 초등학교 99.1%, 중학교 97.8%, 고등학교 94.7%(일반계고 96.4%, 전문계고 90.2%)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2.2%,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일반계고 3.6%, 전문계고 9.8%)가 5.3%에 달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학교 또한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역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감소와 증가를 거듭하다가 최근 약간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계고등학교의 경우 증가하다 최근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II-3> 2000년-2009년 졸업률 추이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초등학교	99.2	98.5	103.3	99.4	99.2	99.1
중학교	97.9	98.4	98.3	98.3	98.1	97.8
고등학교	93.6	94.8	95.6	95.7	95.2	94.7
일반계고	98.7	97.1	97.7	97.3	96.6	96.4
전문계고	86.5	90.0	90.9	91.7	91.5	90.2

* 출처: 2009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http://cesi.kedi.re.kr/publ/publ_yrbk_frme.jsp?menuid=5, 2010. 9. 30 검색

* 주: 1) 졸업률=(졸업자수/3(6)년전 입학자수)x100

2) 해당 연도 졸업자가 입학한 연도의 입학자수 대비 해당 연도 졸업자수비율임.

다음으로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현재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0.5%, 중학교 1.0%, 고등학교 1.8%(일반계고 1.1%, 전문계고 3.8%)이다. 2000년-2009년 추이를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약간 증가하다 감소하였다. 중학교는 약간씩 증가추세에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감소하다 증가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모두 감소하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II-4> 2000년-2009년 학업중단을 추이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초등학교	0.4	0.4	0.5	0.6	0.5	0.5
중학교	0.7	0.7	0.8	0.9	1.0	1.0
고등학교	2.3	1.4	1.3	1.6	1.8	1.8
일반계고	1.1	0.8	0.8	1.0	1.1	1.1
전문계고	4.4	2.8	2.6	3.1	3.5	3.8

* 출처: 2009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http://cesi.kedi.re.kr/publ/publ_yrbk_frme.jsp?menuid=5, 2010. 9. 30 검색

* 주: 1) 학업중단율=(학업중단자수/재적학생수)x100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학업중단자는 질병, 품행, 부적응 및 기타의 사유에 의한 제적, 중퇴 및 휴학자임(2000년부터 사망자, 유학/이민자를 제외)

4) 중학교는 2003년부터 의무교육시행으로 학업중단자를 유예 및 면제자로 봄.

5) 고등학교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가 포함됨.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의 학생변동상황을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의 유예 및 면제자,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5> 학생변동상황(2008.3.1-2009.2.28)

구분	유예 및 면제자 Postponed Enrollment & Exempts											
	합계		유예자				면제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초등학교	17,644	8,079	17,371	7,948	273	131						
중학교	19,675	9,222	19,294	9,030	381	192						
일반계 고등학교	학업중단자(Expelled, Drop-outs, and Absentees)											
	합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16,145	6,508	1,506	734	4,300	1,812	165	62	6,810	2,387	3,364	1,513
전문계 고등학교	학업중단자(Expelled, Drop-outs, and Absentees)											
	합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18,305	7,321	466	219	5,869	2,547	507	224	9,457	3,514	2,006	817

* 2009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index.jsp>, 2010. 9. 30을 재구성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자 17,371명, 면제자 273명으로 총 17,644명이며 중학교의 경우 유예자 19,294명, 면제자 381명으로 총 19,675명이다⁹⁾.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 원인별로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질병 1,506명, 가사 4,300명, 품행 165명, 부적응 6,810명, 기타 3,364명 총 16,145명이 학업을 중단하였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질병 466명, 가사 5,869명, 품행 507명, 부적응 9,457명, 기타 2,006명 총 18,305명이 학업을 중단하였다.

9) 2009 간추린 교육통계(<http://cesi.kedi.re.kr>, 2010. 9. 30 검색)에 따르면 중학교는 2003년부터 의무교육시행으로 학업중단자를 유예 및 면제자로 보고 있다. 초등학교 학업중단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 부득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유예 및 면제자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원인별 학업중단자수를 분석하면, 1980년대에는 ‘질병’, ‘가사’와 같은 학생의 가정환경에 국한된 원인들이 대부분이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품행’과 ‘학교부적응’이 조사되면서 가정 환경에 의한 개인적인 원인 이외에도 학교 환경적인 배경에서도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학업중단 이유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변화로는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학업중단의 주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비행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이 주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은 학업중단의 무시할 수 없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6>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추이

(단위: 명)

구분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1980	5,811	-	-	30,298	14,589
1985	7,532	-	-	42,966	21,073
1990	4,186	-	-	30,027	19,652
1995	2,915	-	11,007	23,870	15,055
2000	2,167	20,702	2,366	17,990	4,231
2005	1,522	9,039	652	6,775	5,088
2006	1,968	10,969	862	8,057	6,074
2007	2,174	14,015	1,034	10,200	5,520
2008	1,972	16,267	672	10,169	5,370

* 출처: 200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http://cesi.kedi.re.kr/publ/publ_yrbk_frme.jsp?menuid=5. 2010. 9. 30 인용.

* 주: 1)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2) ‘-’은 해당 자료 없음.

2. 학교중단의 영향요인 및 과정

학교중단 과정에 비해 학교중단 영향요인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 개인, 사회·인구학적 요인 등이 학교중단과 학교중단이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향요인에 대한 관심에 비해 학교중단 과정 전반을 살펴보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학교중단이 단순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삶의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중단은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중 비교적 학교중단의 (영향요인을 포함한) 과정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개를 통해 학교중단의 (영향요인을 포함한) 과정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학교중단 과정을 설명하려는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중단을 비행 혹은 학교부적응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숙영·남상인·이재규(1997)와 김혜영(2002)이 그 예이다.

우선 이숙영·남상인·이재규(1997)은 다음과 같은 6단계의 중도탈락 과정을 개념화하고 있다(최동선·이상준, 2009에서 재인용). 1단계 가정 및 학교내 성인과 유대감 결손 단계에서는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모 및 성인의 가치관에 대한 무관심 및 저항감이 나타난다. 2단계 갈등의 잠복단계에서는 수동적 반항, 사소한 부적응 현상의 표출, 부모 및 교사의 무관심 등이 나타난다. 3단계 가정 및 학교 밖의 유대감 경험 단계에서는 가정 및 학교 밖에서의 관계의 경험, 가정 및 학교 밖에서의 재미와 의미 경험, 일탈 및 비행행동에 대한 가치화를 경험한다. 4단계 갈등 고조 단계에서는 일탈 및 부적응 행동의 표면화, 청소년-성인 간의 갈등의 심화, 비효율적인 갈등해결양식으로 대처 등이 나타난다. 5단계 결별 단계에서는 청소년 측의 결별 선언, 부모·교사의 포기 및 방임이 일어나며 6단계 결별후 생활 단계에서는 부모, 교사와의 관계 단절, 비행화 경향의 증가 등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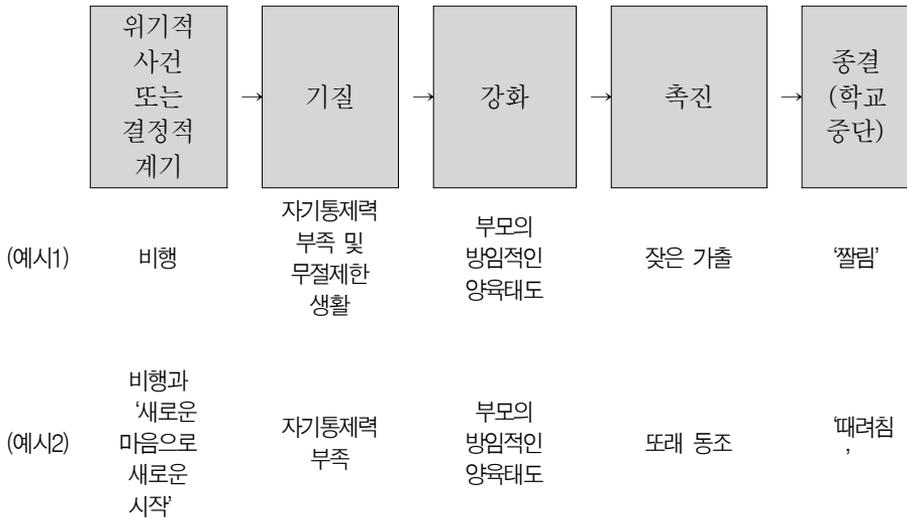
<표 II-7> 이숙영·남상인·이재규(1997)의 학교중단 과정

단 계	주 요 특 징
1. 가정 및 학교내 성인과 유대감 결손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소원 • 부모 및 성인의 가치관에 대한 무관심 및 저항감
2. 갈등의 잠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적 반항 • 사소한 부적응 현상의 표출 • 부모 및 교사의 무관심
3. 가정 및 학교 밖의 유대감 경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및 학교 밖에서 관계의 경험 • 가정 및 학교 밖에서의 재미와 의미 경험 • 일탈 및 비행행동에 대한 가치화
4. 갈등 고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일탈 및 부적응 행동의 표면화 • 청소년-성인간의 갈등의 심화 • 비효율적인 갈등해결양식으로 대처
5. 결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측의 결별 선언 • 부모, 교사의 포기 및 방임
6. 결별후 생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교사와의 관계 단절 • 비행화 경향의 증가

* 출처: “이숙영,남상인,이재규(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최동선,이상준(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서 재인용.

위 연구는 학교중단을 사회적 문제 혹은 비행과 결부시키던 1990년대 후반의 연구경향과 학교중단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즉, 연구자는 학교중단의 과정을 주로 비행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학교중단을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혹은 빈곤으로 인한 불가피성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는 최근의 학교중단청소년연구 경향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며 부득이한 가정형편 등으로 정규학교를 중단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학교중단에 대한 시각은 그 이후 연구인 김혜영(2002)의 연구에서도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연구에서도 학교중단을 비행, 일탈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를 토대로 학교중단 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고 청소년이 학교중단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김혜영(2002)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 II-1] 김혜영(2002)의 학교중단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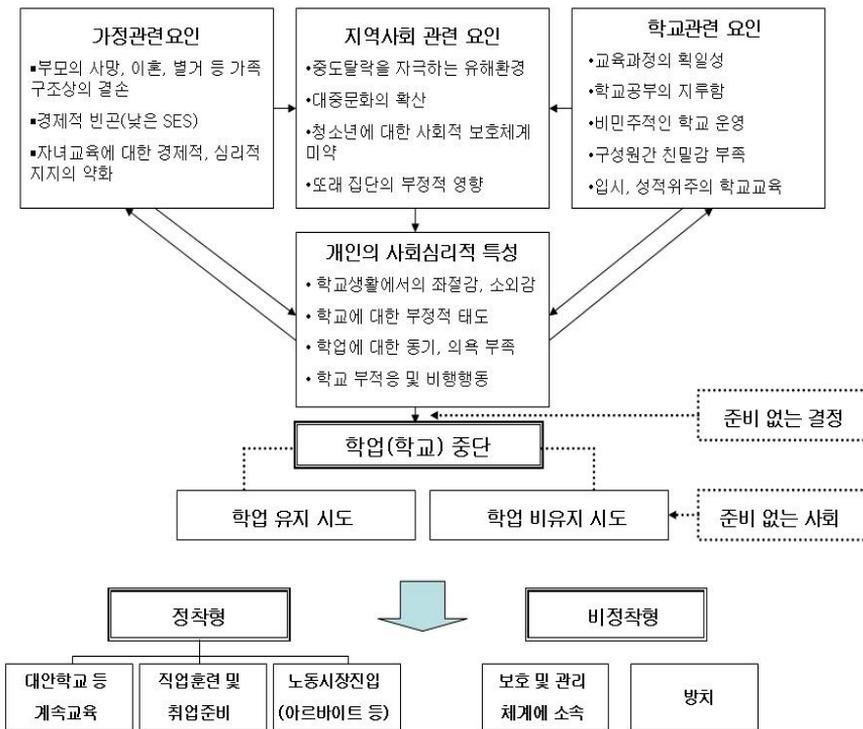
* 출처: “김혜영(2002).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의 삶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동선·이상준(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서 재인용.

김혜영(2002)은 학교중단의 단계는 위기적 사건 또는 결정적 계기가 청소년의 기질에 영향을 미치며 강화를 통해 학교중단관련 행동이 촉진되고 이의 결과로 학교중단(종결)이 발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 또한 학교중단을 비행, 부적응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에 이루어진 최동선·이상준(2009)의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학교중단의 과정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도식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동선·이상준(2009)은 가정관련요인(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 가족구조상의 결손, 경제적 빈곤(낮은 SES),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지의 약화), 지역사회관련요인(중도탈락을 자극하는 유해환경, 대중문화의 확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미약, 또래집단의 부정적 영향), 학교관련요인(교육과정의 획일성, 학교공부의 지루함,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성원 간 친밀감

부족, 입시·성적 위주의 학교교육)이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학교생활에서의 좌절감 및 소외감,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업에 대한 동기·의욕의 부족, 학교 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쳐 학업(학교) 중단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업(학교) 중단 이후 적응유형에 따라 이들은 학업(학교) 중단 청소년을 정착형(대안 교육 진학 및 진학 준비형, 취업형, 직업 훈련 및 취업 준비형, 복합 정착형), 비정착형(시설수용형, 방치비행형, 방치은둔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학교중단이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나타난 학교중단의 결과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11-2] 학교중단의 원인 및 학교중단 이후의 경로 개요도

*출처: 최동선, 이상준(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외에도 박현선(2003)은 학교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을 의미상실 단계, 탈학교 단계, 사회적 실험과 경험의 단계, 새로운 의미부여 단계로 도식화하여 학교중단 이후 삶의 적응과정을 설명하였다.

<p>[1단계] 의미상실 단계</p>	<p>청소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학교 제도에 대해 실망하고, 상처받음으로써 학교에 대한 기대와 의미를 상실한다.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고 다니긴 하되 답답하게 느끼고 다양한 소외를 경험한다. 즉, 몸만 학교에 있는 소위 잠재적 중퇴 단계라고 할 수 있다.</p>
<p>[2단계] 탈학교 단계</p>	<p>청소년은 스스로 나오든, 학교로부터 쫓겨나든지 간에 또는 신중하게 결정하든, 우연한 사건에 의해 충동적으로 결정하든지 간에 학교 제도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벗어나면서 경험하는 단계이다.</p>
<p>[3단계] 사회적 실험과 경험의 단계</p>	<p>청소년은 제도권 밖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경험한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 특히 주변의 도움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실험을 해보게 되지만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 청소년들은 시도조차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 예를 들어 인간관계나 차별,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을 경험하게 된다.</p>
<p>[4단계] 새로운 의미부여 단계</p>	<p>자신의 학교중단 경험에 대해 회고하면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부여한다. 비교적 긍정적인 경험이 주를 이루고 자기 만족도가 높은 실험을 한 경우 학교중단의 결정과 과정을 좋은 쪽으로 합리화하고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에 대한 반감과 중퇴라는 결정에 대해 후회를 한다.</p>

[그림 II-3] 박현선(2003)의 학교중단 청소년의 학교중단 이후 적응과정

3. 소결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가차원의 통계자료를 통해 학교중단 청소년 현황, 학교중단의 영향요인 및 과정에 대한 논의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률은 97.9%, 중학교 취학률은 96.2%, 고등학교 취학률은 92.5%이다. 2009년 현재 초등학교→중학교 진학률은 99.9%, 중학교→고등학교 진학률은 99.6%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0.4%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9년 현재 졸업률은 초등학교 99.1%, 중학교 97.8%, 고등학교 94.7%(일반계고 96.4%, 전문계고 90.2%)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2.2%,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5.3%(일반계고 3.6%, 전문계고 9.8%)에 달하였다. 2009년 현재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0.5%, 중학교 1.0%, 고등학교 1.8%(일반계고 1.1%, 전문계고 3.8%)이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주로 가정관련요인(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 가족구조상의 결손, 경제적 빈곤(낮은 SES),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지의 약화), 지역사회관련요인(중도탈락을 자극하는 유해환경, 대중문화의 확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미약, 또래집단의 부정적 영향), 학교관련요인(교육과정의 획일성, 학교공부의 지루함,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성원간 친밀감 부족, 입시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이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학교생활에서의 좌절감 및 소외감,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업에 대한 동기의욕의 부족, 학교 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쳐 학교 중단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중단 이후 적응유형에 따라 학교중단 청소년을 정착형(대안 교육 진학 및 진학 준비형, 취업형, 직업 훈련 및 취업 준비형, 복합 정착형), 비정착형(시설수용형, 방치비행형, 방치은둔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었다.

Ⅲ. 국가차원의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정책

1. 학교중단 청소년 관련 법령
2.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정책 동향
3. 소결

Ⅲ. 국가 차원의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정책

본 장¹⁰⁾에서는 학교중단청소년의 실질적인 취업자립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별 다양한 법령,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고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를 중심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1. 학교중단 청소년 관련 법령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법령들이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표 III-1> 학교중단 청소년관련 법령

법령	내 용
여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④ 청소년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1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15.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청소년공부방 등의 운영·지원 ⑥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지도·감독 7. 청소년치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9. 가출·비취학·학업중단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13.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14.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15. 청소년 전화·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16.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III 장은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해수 교수가 집필하였다.

<p>청소년 기본법</p>	<p>제42조(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①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설립한다. 6.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기관의 청소년상담·위기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8. 학업중단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p>
<p>청소년 복지지원법시 행령</p>	<p>제7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기준)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은 다음의 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p>
<p>초·중등 교육법</p>	<p>제28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0조의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교육과학기술 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0조 (교육복지국) ④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p>
<p>평생 교육법</p>	<p>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16세를 넘은 자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p>

2.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정책 동향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학교중단청소년 지원 사업은 「청소년기본법」 제42조 1항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기능에 ‘학업중단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 1항 시도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기관의 기능 등에 ‘청소년의 자립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학교중단청소년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사업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밀’ 을 통해 시작되었다. 2004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을 비롯하여 경기, 대전, 광주, 제주 해밀센터가 개소되어 학교중단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 해밀 사업은 CYS-Net(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 통합되어 학교중단청소년을 비롯한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 치료, 자활 등으로 확대·개편되었다. CYS-Net 사업은 중앙에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 그리고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학교중단청소년을 비롯한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CYS-Net 사업은 학교중단청소년을 비롯하여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이고 신속하며, 통합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청소년 전화 1388, 1388청소년지원단을 통해 의뢰·발견된 위기청소년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위기정도를 판정받은 후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및 지역사회의 통합지원체계 연계망으로 연계되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의 ‘자립·자활’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자립 준비를 위한 체험중심적 토탈자활지원프로그램 ‘두드림존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학교중단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으로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두드림존프로그램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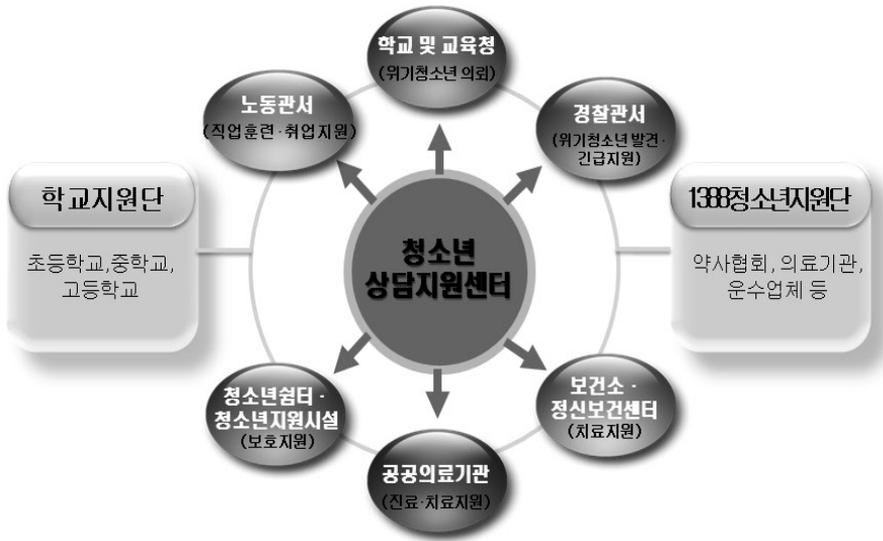
① 추진배경

지속적인 이혼율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가장의 실직 등으로 가정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기능 약화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별로 인프라의 편차가 있거나 상호협력체계가 부족하여 대상자 조기 발견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별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학교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One Stop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이하 CYS-Net)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② 추진 체계

CYS-Net의 추진 체계는 그림과 같다.

CYS-Net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정한 행정 구역 내에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들, 즉 교육기관,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기관, 보호시설, 진료 및 의료시설, 치료 기관, 경찰 기관 등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서비스 및 활동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정상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III-1] CYS-Net 체계도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③ 지원 대상

CYS-Net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은 교육, 경제, 의료, 법률 등 사회적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이다.

여기에서 ‘위기청소년’이라 함은 일련의 개인·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장래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④ 지원 내용

CYS-Net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CYS-Net 사업은 2009년 현재 16개 시·도와 80개의 시·군·구 청소년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98,020의 위기청소년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3년까지 전국 248개 지역(시·도 16개, 시·군·구 232개)에 확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표 III-2> CYS-Net 운영지역 및 서비스 이용인원

연도	시범운영지역(단위:개소)			서비스 이용 인원(단위:명)		
	시·도	시·군·구	전체	남자	여자	전체
2006	16	40	56	14,055	15,135	29,190
2007	16	52	68	27,845	29,054	56,899
2008	16	65	81	40,977	40,025	81,002
2009	16	80	96	-	-	98,020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2009). 2009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보건복지가족부(2010).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또한 2009년부터 학교중단청소년을 CYS-Net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체계화하고 학교중단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위 표는 최근 3년간 CYS-Net 운영 지역과 서비스 이용 인원 실적을 제시한 것이다.

관문으로서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전화 1388 은 전화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고민, 혹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사례를 접수하여 내방상담으로 연계하거나 청소년동반자의 파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표 III-3> Help Call 1388 청소년상담 실적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이용실적	243,051건	353,578건	424,740건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2009). 2009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2020).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접수된 사례 중 위기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 CYS-Net을 통한 위기 개입 상담, 긴급구조상담 및 일시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의료, 법률, 교육, 자활훈련, 특별 지원 등 기타 지역사회 및 국가의 자원에 청소년을 의뢰하는 연계 지원을 한다.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은 2009년 현재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132개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등 전국 148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1388을 통해 적극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접수되었을 경우 위기상담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직접 개입하거나 경찰, 1388청소년지원단 등의 도움을 받아 개입한다.

‘1388청소년지원단’ 이나 ‘Help Call 1388’ 이 CYS-Net의 서비스 접근을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한다면,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CYS-Net의 지속성이나 통합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중단청소년을 비롯한 위기청소년은 자신감의 약화와 사회적 도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로 인해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상담전문가가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동반자(Youth Companion) 제도를 도입하였다. 청소년 동반자는 위기청소년에게 각종 상담이나 심리·정서적 지지, 자활 지원, 학습·진로지도, 문화 체험 등을 제공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2006년 8개 시·도, 2007년 14개 시·도, 2008년 16개 시·도로 확대됨과 동시에 청소년동반자도 2006년 300명에서부터 2008년 현재 600여명으로 확대되어 많은 위기청소년들에게 개인특성과 필요에 따른 수준 높은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사업 : 두드림존(Do Dream Zone)

①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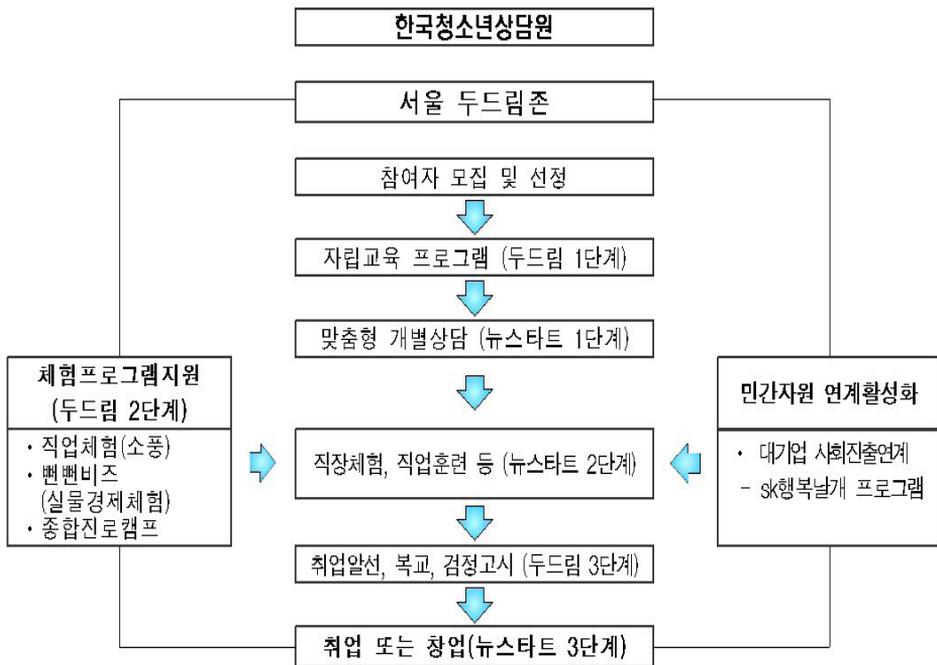
학교중단청소년을 비롯한 위기청소년(at-risk youth)은 대부분 부모, 가족과 단절되어 있거나 학교의 도움 없이 성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이 희박하고, 학습수준이 낮고, 진로관련 정보 획득의 기회도 적은 반면에,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많아 충분한 준비 없이 근로현장에 뛰어들어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다. 그러므로 위기청소년에게는 사회적응과 독립적 생활기술, 자아 향상과 자립심 강화를 위한 실제적 진로직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특성상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자립 동기 증진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심리적인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사후지원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위기청소년의 진로 동기화를 증진시키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 가능한 자립 기반 확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드림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두드림존 프로그램은 한 단계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스크리닝→동기화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 체험중심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 사회진출 지원」의 단계를 걸친 입체적인 프로그램이며, 무엇보다 CYS-Net의 자활지원연계망에 체계적으로 링크되어 있어 위기청소년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② 추진 체계

두드림존의 추진 체계는 그림과 같다.



[그림 III-3] 두드림존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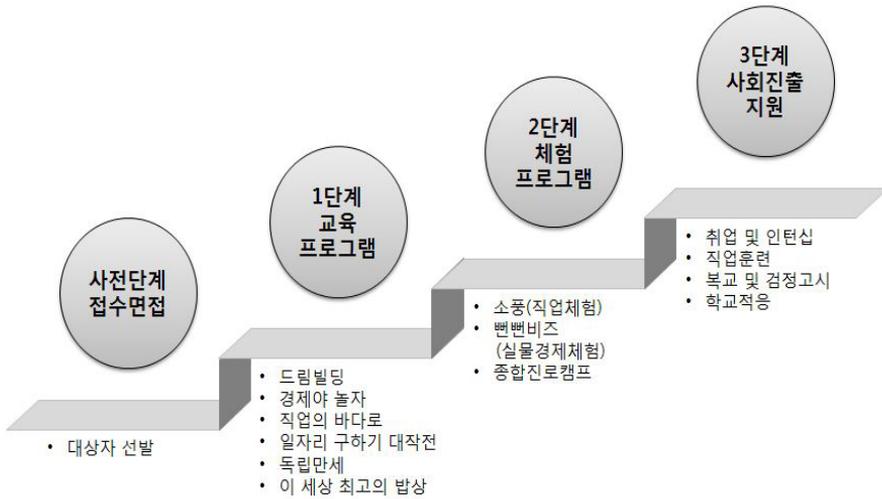
④ 지원 대상

두드림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만 16~21세까지의 자립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이나 학교 등과 같은 1차 안전망에서 이탈하였거

나 이탈할 상황에 처한 청소년으로 가출청소년,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학교부적응 상태에 있는 청소년, 범죄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청소년, 청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퇴소예정인 청소년, 정규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다문화 가정이나 새터민 가정 등의 자녀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해당된다.

⑤ 추진 내용

두드림존 프로그램은 크게 사전 단계, 교육단계, 체험단계, 사회진출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III-4] 두드림존프로그램 단계별 모형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2009). 두드림존프로그램매뉴얼 1단계, p43.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표 III-4> 두드림존 프로그램 구성

단계별	프로그램명	내용
사전단계		참여청소년 진로의식조사/ 자활관련 인지도 조사
1단계	1일차	드림빌딩
	2일차	경제야 놀자
	3일차	직업의바다로
		신입직원 선발의날
	4일차	독립만세
		이 세상 최고의 밥상
2단계	직업체험 '소풍'	
	실물경제체험 '뽀뽀비즈' (2일)	
3단계	사회진출지원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사업 두드림존 결과보고, p32.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사전 단계에는 사전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요인과 진로효능감, 진로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조사한다. 1단계는 교육프로그램으로 1일차에는 ‘드림빌딩’, 2일차에는 ‘경제야 놀자’, 3일차에는 ‘직업의 바다로’, ‘신입직원 선발의 날’, 4일차에는 ‘독립만세’, ‘이 세상 최고의 밥상’ 등으로 구성된다. 2단계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직업체험 소풍’, ‘경제체험 뽀뽀비즈’, ‘두드림존 캠프’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3단계는 위기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단계로 취업이나 인턴십, 직업훈련으로의 복교 등을 지원한다.

두드림존 프로그램 1단계를 마친 청소년들은 청소년동반자(YC)나 전문 멘토를 연결하여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기준은 본인의 참여 의지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

<표 III-5> 2009년 두드림존 사업실적

구 분	추진실적
참여인원	· 전체 참여인원 : 6,975명 - 1단계 : 3,005명, 2단계 : 3,302명, 3단계 : 668명
전문인력 양성교육	· 두드림존 프로그램 운영자 120명 양성
상설운영기관	· 상설운영기관 3개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대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 시범운영기관 17개소 - 강원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군포시, 충청남도, 문경시, 충청북도, 성남시, 제천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창원시,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청소년내길찾기, 부산광역시종합지원센터
온라인관리 시스템 관리	· 두드림존 홈페이지(www.dodream.or.kr) · CYS-Net 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시스템 구성 · Daum 카페를 이용한 두드림존 실무자 정보교류 활성화
사업추진평가회 및 컨설팅	· 두드림존 사업설명회 및 추진평가회의 실시 · 상설 및 시범운영기관 방문 컨설팅 실시
목표 관리 시스템 운영	· 두드림존 추진 현황표 제작 · 두드림존 운영기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실적구축 보조
프로그램 개선	· 두드림존 프로그램 효과 검증 및 매뉴얼 개정 연구
최종평가 워크샵	· 두드림존 최종평가 워크샵 실시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사업 두드림존 결과보고, p39.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두드림존 프로그램은 3개의 상설 운영 기관, 17개의 시범 운영 기관을 통해 운영되었다. 2009년에는 한국청소년상담원,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대전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설 두드림존을 운영하였고, 2009년에는 17개의 시범운영기관을 통하여 1단계 3,005명, 2단계 3,302명, 3단계 668명의 위기청소년들에게 자립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2009년 두드림존 사업실적은 앞의 표와 같다.

2) 교육과학기술부

(1)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

① 추진 배경

교육과학기술부는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위기학생들에 대해 학교, 교육청 차원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해 ‘진단-상담-치유’ 전문컨설팅 기능 강화로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즉,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이하 Wee project) 구축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에 접목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 하고, 학생, 학부모가 전국 어디에서나 브랜드만 보고도 찾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표준화하였다.

Wee project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잠재적 학교중단 학생이나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중의 안전통합지원 서비스망이다.

Wee라는 용어는 ‘We(우리)+ education(교육)+emotion(감성)’의 이니셜이며, 여기에 하트(♥)를 접목시킨 브랜드로 어른(지도자)에게는 나(I)와 너(You) 속에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학생에게는 감성과 사랑 속에 Wee 공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② 추진체계

사업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이며, 사업운영은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청이 맡고 있다.

<표 III-6> 시도별 Wee project 설치·추진 현황

구분	Wee Class				Wee center				Wee school			
	'08	'09	'10	계	08	09	10	계	08	09	10	계
서울	31	80	100	211	2	4	5	11
부산	75	95	80	250	2	3	.	5
대구	80	84	45	209	2	2	1	5
인천	25	82	36	143	2	4	.	6	.	.	1	1
광주	30	32	30	92	2	1	.	3	.	1	.	1
대전	25	37	37	99	2	1	.	3	.	.	1	1
울산	25	31	34	90	2	1	.	3
경기	30	122	210	362	2	5	6	13
강원	25	48	28	101	2	3	1	6	.	1	.	1
충북	27	77	20	124	2	6	1	9
충남	25	61	31	117	2	5	2	9	.	1	.	1
전북	25	65	31	121	2	4	2	8
전남	25	81	50	156	2	5	2	9
경북	32	45	92	169	2	2	5	9
경남	25	51	160	236	2	2	5	9
제주	25	9	16	50	1	1	.	2
합계	530	1,000	1,000	2,530	31	49	30	110	.	3	2	5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위프로젝트 특임연구센터 내부자료(2010).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Wee Project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단위 학교는 친한 친구 교실인 Wee class를 운영하고, 교육지청은 학생생활지원단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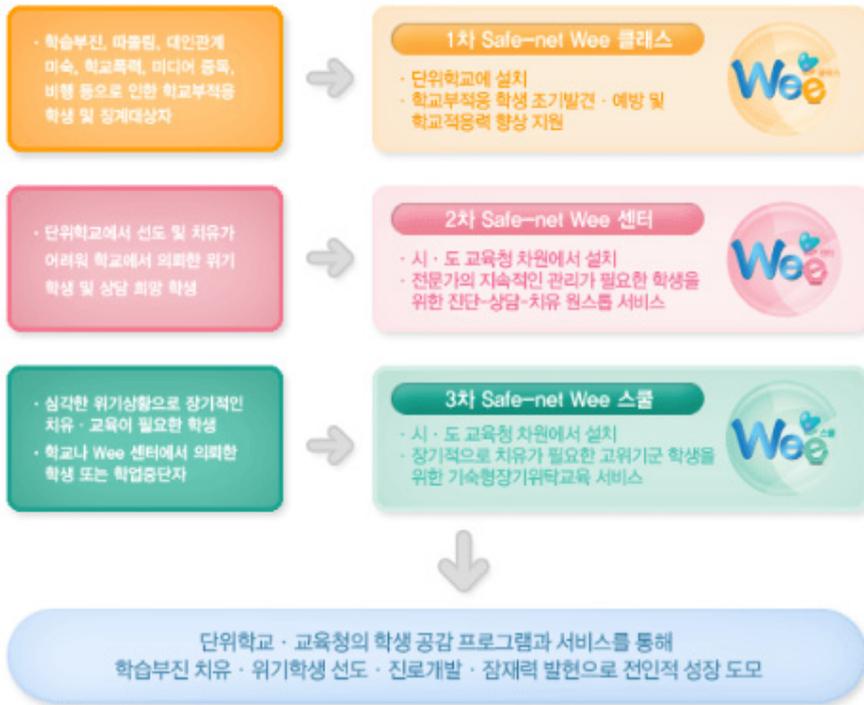
Wee Center를 운영하며, 교육청은 Wee School을 설치 및 운영한다. 2010년 현재 Wee class는 2,530개소로 전국적으로 22.7%의 설치율(2,530개/1만 1160개)을 보이고 있다. Wee Center 80개소, Wee school 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③ 지원 대상

Wee Project의 주요 지원 대상은 잠재적 학교중단 학생 등 위기학생이며, 보조 지원 대상은 일반학생이다. 이들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는 청소년이다.

④ 추진 내용

'Wee project'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잠재적 학교중단 학생이나 위기학생들에게 다양한 상담이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통합안전망으로 크게 1~3차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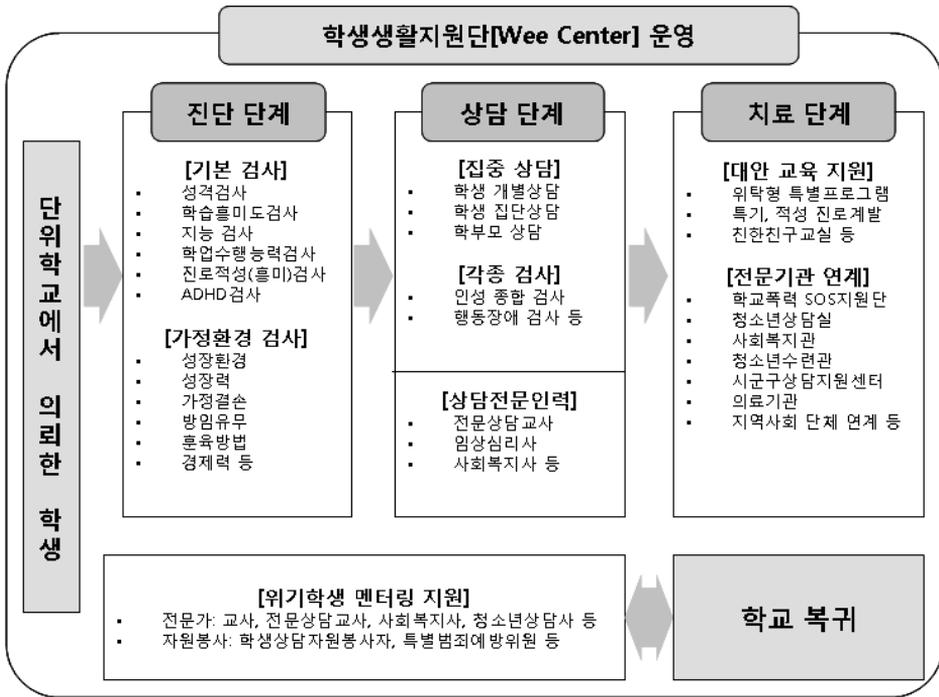


[그림 III-5] Wee Project 체계도

* 출처: 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www.wee.or.kr, 2010. 12. 20 검색

1차 안전망인 ‘Wee class’는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하도록 학생의 감성과 문화에 걸 맞는 감정소통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Wee class에서는 전문상담교사나 인턴상담교사(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곳)가 상시 배치되어 있으며, 정서불안, 대인관계미숙, 학습무기력, 따돌림, 비행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차 안전망인 “Wee center는 교육지청 단위의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를 위해 교육지청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단-상담-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림 III-6] Wee Center 체계도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2009).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 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주요 프로그램으로,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렵거나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의 전문인력들이 진단-상담-치료-진로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청소년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단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III-7] Wee Center 서비스 네트워크

* 출처: 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wee.or.kr>, 2010. 12. 20 검색

3차 안전망인 'Wee school'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것으로 기숙생활을 통해 교육, 치유, 적응활동을 하는 장기위탁교육기관이다. Wee school은 전문가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잠재적 학업중단자 및 위기학생들의 감성(심성교육, 특별활동프로그램)과 잠재력을 개발(복교, 직업교육, 사회적응력 향상프로그램)을 해주는 통합서비스이다.

Wee school은 소수 정예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 교육 이외에도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진로, 직업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졸업 후 Wee school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일반학교에 원적을 두고 있다. 2010년 현재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충북교육청에서 Wee school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운영하여 부분적으로 취업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학교중단 청소년 정책은 크게 고용정책과 능력개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1월부터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학교중단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1)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① 추진배경

고용노동부는 청년 실업 해소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둔 영국의 청년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구체적 대안으로 개인별 맞춤형 종합취업 지원서비스인 YES(Youth Employment Service)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YES프로그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탐색 및 구직기술 제고,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도 시범운영에서는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취약계층 청년층으로 특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정책대상자를 ‘취업취약 청년층’으로 특화하여 점차 개별 심층상담을 기초로 한 맞춤형 종합고용서비스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노경란 외, 2008). YES프로그램은 2009년 이후부터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뉴스타트는 개인별로 직업진로 지도에서 취업까지의 전과정에 대해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전담상담원을 두어 청년 미취업자에게 심층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인별로 취업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로를 설계,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동선, 이상준, 2009).

② 지원 대상

뉴스타트 지원 대상은 15세~29세(군필자인 경우 31세)의 실업급여 비수급 청년층 중 고졸이하 학력자, 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 청소년단체 및 관련기관의 추천·의뢰가 있는 청소년 등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이다.

<표 III-7> 뉴스타트 대상별 판단 기준

대상자	판단기준
고졸이하 비진학미취업자	고졸이하(대학, 전문대 중퇴자 포함) 저학력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층
정기 구직자	졸업 또는 실직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있는 청년층
니트족	최근 2년 동안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으로 주로 구직단념자, 단기근로반복자(최근 2년간 일용직, 기간제 등의 근로만 반복한 자) 등의 청년층
위기 청소년	학교 중도 탈락, 가출, 폭력, 학대 피해, 범죄 피해, 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및 관련 기관의 추천, 의뢰가 있는 청소년

* 출처: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③ 지원 내용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각종 직업심리검사·심층상담에서 취업알선까지 전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개인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단계별 추천 체계는 표와 같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 2. 10일자).

1단계 프로그램(진단·경로 설정, 3~6주)은 총 6회기에 걸쳐 이루어지며 개별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약점 및 극복방안을 방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계획(IAP)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직업지도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1단계를 수료하면 참여수당 30만원을 지급 받는다.

2단계 프로그램(의욕·능력 증진, 1~8개월)에서는 1단계에서 수립한 개인별 취업계획이나 적성에 따라 직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청년은 직장체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등에 연계하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청년은 1인당 2백 만원까지 지원(자부담 면제)이 가능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발급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표 III-8>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단계별 세부 내용

단계 (기간)	세부내용
사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상담 예약 • ※ 본격적으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통해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사전 접수 및 등록을 하는 단계
제1단계 (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기초상담, 직업선호도 검사 실시 • 2차 상담, 직업선호도 검사 해석, 구직 효율성 검사 실시 • 3차 상담, 구직효율성 검사 해석, 뉴스타트-IAP 수립,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가 상담 • 4차 상담, 직업가치관 검사 실시와 해석 • 5차 상담,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가 및 2단계(또는 3단계) 연계 준비 • 6차 상담, 뉴스타트-IAP 수립, 만족도 검사 • ※ 6차에 걸친(약 4주 소요) 개별 심층상담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참가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모색
제2단계 (1~8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에서 수립된 취업계획에 따라 직장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장체험을,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 직업훈련을 제공 • ※ 참가자의 특성과 희망에 따라 적합한 직장체험이나 직업훈련이 있을 경우, 연계서비스 제공
제3단계 (최대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를 통해 파악된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집중 취업 알선 • 기업탐방 또는 동행 면접, 적합한 구인처 발굴 등을 통한 적극적 취업 지원 • 구직기술 클리닉 서비스 및 취업 알선 • ※ 참가자가 적합한 곳에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동행 면접이나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관련 정보의 제공, 기업 탐방 등의 기회를 상황에 따라 제공하며, 구직기술 클리닉 서비스 제공, 취업 알선에 집중하는 단계

* 출처: “워크넷 홈페이지, <http://www.work.go.kr>, 2010. 12. 20 검색” 을 재구성.

3단계 프로그램(집중알선취업, ~3개월)에서는 1·2단계를 통해 파악된 참여자의 적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동행 면접 등 집중 취업 알선을 실시하고 뉴스타트 수료자에 대해 참여자의 경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료증을 교부한다. 3단계가 완료된 후에도 참여자가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뉴스타트 1단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수당은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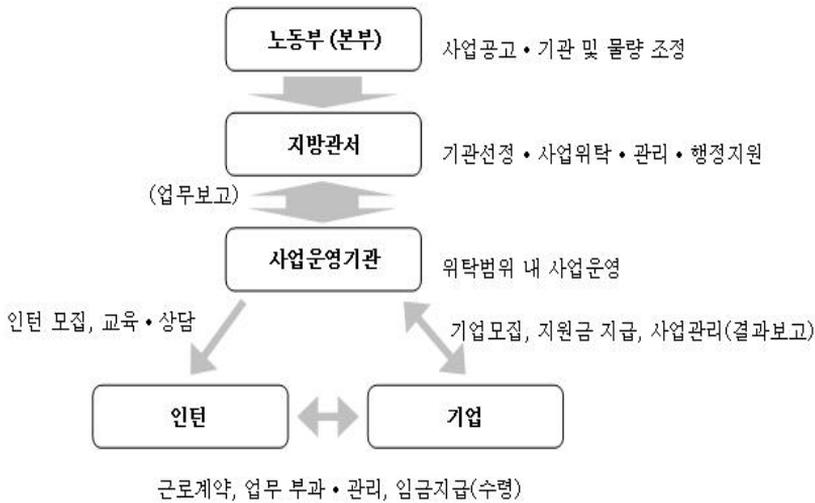
(2)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① 추진배경

고용노동부는 고학력화 경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 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 의식을 고취하며,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다.

② 추진 체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추진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고용노동부(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지방노동관서는 운영 기관을 선정, 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 기관은 기업, 인턴모집·알선 등 사업을 시행, 그 후 지방관서는 사업 운영을 지도·관리한다.



[그림 III-8] 청년인턴제 사업추진체계

* 출처: 고용노동부(2010). 2010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시행 지침. 서울: 고용노동부.

③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로 고등학교(이하 포함)를 졸업하거나 2월 졸업 예정인 미취업 상태 청년이면 직장 경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졸자의 경우 졸업 후 6개월 이상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참여가 배제된다. 휴학자로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직전 방학 중에 있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특히 2010년 2월부터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으로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졸 이하 청년층 전문인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연간 총 1만 명을 목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④ 추진 내용

운영기관은 인턴 개시 이전에 인턴 참가자에게 3일(또는 15~18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사전직무교육은 인턴 개시 전후에 인턴(희망자)을 대상으로 인턴과정(중소기업 이해, 직장 매너, 직업과 삶, 면접 특강,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며, 교육시간은 15~18시간 정도이다. 사전직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중소기업인력개발원,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다.

인턴 급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며, 이때 약정임금(근로기준법 통상 임금)의 50%를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저 월 50만원 최고 월 80만원 한도 내에 하며, 운영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인턴 기간은 약정으로 정한 이후에도 기업 사정 등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인턴 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인턴 기간 중 지원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6개월 간 추가로 지원한다. 인턴 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그 기관장 명의의 '인턴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 인턴 근무경험이 유사직종 등의 취업에 필요한 경력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2월부터 고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제도 내용을 개선한 것이다.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 2. 16일자).

첫째, 인턴제가 본래 제도의 취지와 같이 인턴참여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훈련제도 및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유급휴가훈련제도를 통해 인턴 참여자가 2주 이내의 유급휴가훈련을 사업주에게 신청한 후 외부 기관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 직원 중 인턴 참여자에 대한 1:1 지도·조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토록 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둘째, 취업 애로를 겪는 취약청년층에 대한 인턴 취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인턴 기간 중 임금의 70%(60만원~96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 100인 이하(5인 이상)의 비영리법인·단체, 유아원·보육시설도 인턴제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인턴 참여 요건과 관련하여 미취업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 비자발적 실직자나 단시간·일용 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는 미취업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3) 청소년 직업체험학습 프로그램(Job School)

① 추진배경

고용노동부 소속인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체험 및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잡스쿨(Job School)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잡스쿨은 청소년 직업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스스로 직장의 참여와 체험을 통해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현장직업 체험교육을 제공하여 조기 직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을 통한 공공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다(변숙영, 이수경, 이종범, 2009).

② 추진 체계

잡스쿨은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 선택을 도와주고, 직업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직업특강, 대학전공 체험, 기업체 견학 및 현장직업인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③ 지원 대상

각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한해 총 5회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각 회당 신청인원은 40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중식 및 차량을 제공한다. 종합고용지원센터의 관내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 청소년 및 학부모 그룹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한부모 자녀, 소외지역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④ 추진 내용

잡스쿨의 프로그램은 직업정보 및 진로탐색 강의, 대학교수 강의를 통한 전공 체험과 기업체 직업 체험 및 현장 직업 강의로 진행된다.

<표 III-9> 잡스쿨 1박 2일 프로그램 세부 내용

		내용	
1 일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일정 및 주의사항 등 안내	
	직업정보 및 진로탐색 강의	직업의 이해, 직업정보 탐색 방법 및 산업과 관련된 직업의 동향 등에 대한 강의	
2 일차	08:00	집합·이동	전세버스를 이용해 대학교로 이동
	1시간	학과교수 강의	체험 분야의 직업세계 및 고용동향, 산업전망, 기술동향, 건전한 직업관 등에 대한 강의(대학교수)
	3시간	직업체험	체험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체험 실습 및 전공실습(대학조교 및 현장 직업인)
	1시간	중식	대학 구내 식당 및 학교 근처 식당
	3시간	기업체 견학	기업체의 실무현장(산업현장)을 견학하고 근로조건 및 직업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짐(현장 직업인 강의 및 직업체험)
	17:00	수료	수료식, 기념촬영, 귀교

* 출처: 노동부(현 고용노동부)(2009).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안내.

(4)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① CAP(Career Assistentment Program)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청년층 대상자가 자신의 직업가치관과 흥미, 선호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꿈을 설계해 나가는 가운데,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 선택과 취업을 돕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것이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참가자 10~15명 정도가 한 반으로 구성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6시간씩, 금요일은 3시간씩 진행되며, 총 45일간(27시간 수료) 진행된다. 참여자에 대한 훈련 수당은 없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구직자 등 청년은 누구나 가능하며 특별히 정해진 참가 자격은 없다.

<표 III-10>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세부 내용

훈련일	주요내용	사례소개
1일	A. 나를 만나러 가는 길	1. 진행자 및 전체 활동 소개 2. 별칭짓기, 공통점 찾기 3. want-have list 작성 4. 내 꿈의 변천사
	B. 내안의 나를 찾아서 I	1. 괜찮은 나, 발견하기 2. 나의 직업가치관 탐색하기 3. 간편 흥미검사 실시 4. Holland 흥미유형 해석기 5. 흥미유형 탐색 활동 6. 기타 진로검사 안내 마무리
2일	C. 내안의 나를 찾아서 II	1. 나의 학습 특성 알아보기 2. 학업과 직업능력과의 관계 이해
	D. 커리어 네비게이션 I	1. 직업에 대한 이해 2. 직업에 대한 이해 다지기(OX퀴즈게임) 3. 학과와 진로 관련성 이해 4. 나의 전공 나의 진로
3일	E. 커리어 네비게이션 II	1. 이런 직업이?(동영상) 2. 진로정보 길라잡이 3. 정보전쟁 길라잡이
	F. 결정은 내가 한다	1. 우주 타임캡슐 2. 의사결정유형, 그 실제와 진실 3.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실습
4일	G-1. 올라가자, 내 꿈의 사다리	1. 꿈의 사다리 작성하기 2. CAP와 함께 한 나의 역사 3. 나의 PR 스크립트 만들기
	G-2. 올라가자, 내 꿈의 사다리	1. 꿈의 사다리 작성하기 2. CAP와 함께 한 나의 역사 3. 세 명의 석공이야기(만화컷)
	H-1. 나를 표현하자	1. 모둠 활동 내용 소개 2. 자기 PR UCC 만들기 3. 가상추천서 쓰기
5일	H-2. 진학면접길라잡이	1. 대학 진학 면접의 기초 이해 2. 모의 대학 진학 면접 실시 3. 모의 면접 피드백
	I. 꿈의 무지개를 찾아서	1. 그려보자! 나의 진로 무지개 2. 기본 좋은 폭격: 장점 폭격 3. 과정정리

고등학생 직업지도프로그램(만 15세~18세 권장)은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진학을 포함해 앞으로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며, 대학생용 직업지도 프로그램(만 19세~29세 권장)은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및 구직기술 향상으로 취업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고, 참가 일정 등을 담당자와 협의한 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단체신청 시에는 모듬별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지역의 고용지원센터 또는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진행 담당자와 협의하면 된다. 참여자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진행자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직업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표에 나타나 있다.

② 취업희망 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은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찾도록 하여 자신감 회복과 취업 희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취업 희망으로 인간관계 향상과 취업 및 원만한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취업희망프로그램은 참가자 8~12명 내외로 구성되며, 4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자에 대한 훈련 수당은 없다. 참가자격은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접수상담 후 참가 가능)이며, 자신감을 증진하고 싶은 사람, 회사 취업 후 인간관계 적응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 취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및 취업과 회사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은 사람, 나에 대해 알아보고 취업 희망을 하고 싶은 사람, 대인관계를 더 좋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취업희망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1> 취업희망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소개

훈련일	제 목	활 동
1일	1. 빗장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과원 게임 • 소감나누기 • 레크리에이션 • 집단규칙 알려주기
	2. 나와의 만남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으로 한 것
	3. 나와의 만남 II-교류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소개 • 활동 및 교류
	4. 나와의 만남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경을 통해 발견한 나의 힘
	5. 새롭게 알게 된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의 외침
2일	1. 우리는 한 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한 운명
	2. 건강한 만남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과 일치적 대화 방법 소개 • 일치적 대화 방법 검사 실시와 해석
	3. 효과적인 대화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마음 헤아리고 전달하기 • 방해요소 인지하고 극복하기 • 상대방 마음 헤아리고 전달하기 • 신체 언어 인지하고 표현하기 • 일치적 대화 역할연습
3일	1. 내 삶의 버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소개 • 보충자료 작성 • 나누기
	2. 나의 특성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소개 • 나에게 중요한 것-가치 • 내가 잘하는 것- 장점과 능력 • 내가 좋아하는 것- 흥미
	3. 동영상 시청 및 감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감상 및 소감 나누기
	4. 안성맞춤 직업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희망 직업 • 대차대조표를 활용한 안성맞춤 직업선택
	5. 직업정보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탐색
4일	1. 꿈을 현실로: 계획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목표 및 단계별 계획 세우기 • 2주간의 계획 세우기
	2. 프로그램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소감 나누기 • 동아리 구성 및 카페 소개 • 노동부 프로그램 소개 • 사랑의 선물 • 수료증 수여 및 축하 파티
다시 만나는 날	1. 프로그램 소개 및 실천계획 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 실천계획 돌아보기 및 소감 나누기
	2. 개별 상담 및 수정 계획 수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및 수정 계획 수립하기
	3. 취업희망 소원 빌어주기 및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희망 소원 빌어주기 및 마무리

4) 보건복지부

(1) 청년자활인큐베이팅사업

① 추진 배경

자활 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공공부조 적용을 받지 못하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도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최저생계보장을 받게 되었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 역량이 향상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의 빈곤탈출 확대 및 자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미취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III-9] 자활인큐베이팅 흐름도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6월 15일 보도자료.

특히, ‘청년자활인큐베이팅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자활·자립 경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계 또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빈곤 청년의 개인별 근로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인적 투자를 통한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여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9. 6. 15일자).

② 추진 체계

자활사업은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③ 지원대상

청년자활인큐베이팅의 지원 대상은 자활사업 참여 대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18세부터 24세의 해당 되는 자이다. 학교 미진학자, 중퇴자, 가출자 등 미성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근로무능력자이나 사업 참여를 인정하되 근로중심 프로그램의 참여를 지양하고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자활인큐베이팅사업 등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단, 15세 미만은 자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15세~17세의 자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표 III-12>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의 추진 체계

구 분	기능·역할	비 고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프로그램 개발·추진 · 지역자활센터 지정·관리 	자활정책·사업 총괄관리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 2월)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급 ·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중지여부 결정 · 참여자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자활사업 총괄시행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자산조사 제외) 	조건부수급자 관리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추진 	취업대상자 총괄관리
고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관리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 ·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취업지원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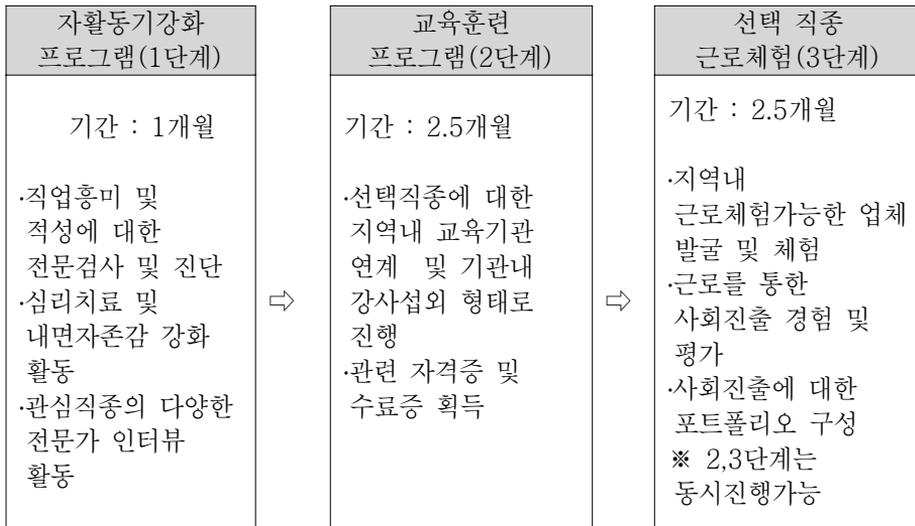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2010). 2010년 자활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④ 지원 내용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의 지원 기간은 6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자가 원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자활인큐베이팅의 지원 내용은 참여자에게 별도의 급여(1일 28,000원)를 지급하고,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또는 지원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대상자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활사업 수행 시간이 참여자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직업능력, 자활의지, 적성 등을 심층 분석한 후 자립계획을 참여자와 함께 수립한다. 창업인 경우 자활사업 수행 기관과 참여자가 함께 창업아이템을 선정하여 시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다. 유사업종 파견 근무 등을 통해 참여자의 창업 능력을 확인토록 지원해주는 한편, 구체적인 창업계획서를 작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자금 융자 등을 통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취업인 경우 취업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세부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취업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또한 기존에 구성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인턴 과정을 두루 거치면서 본인의 적성 및 특성에 맞는 사업단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각 단계별로 사업수행기관 실무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평가 등을 통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자립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의 자아정체성 회복 및 자립에 대한 정신적 동기 부여를 위해 인문학 강좌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2009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9. 6. 15일자).



[그림 III-10] 청년인큐베이팅 사업 내용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 2009년 6월 15일 보도자료.

5) 법무부

법무부의 학교중단청소년 지원 서비스는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자활지원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관들에서는 학교중단 청소년을 수용, 보호하여 비행을 단절·예방하며 환경조사·각종 심리검사·신체검사·행동관찰을 통한 정신의학적 진단, 특별교육과정 개설·운영(정보통신, 체능, 예능교육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기술교육을 통한 각종 자격증 획득 및 검정고시 기회 제공, 위탁 기간의 출석 일수 인정 등의 실용 교육 과정 개설 운영과 심층적인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독자적이고 정규적인 학업,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소년원(부산, 광주, 대전)을 정규학교로 전환하였다. 법무부의 학교중단청소년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는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업 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 체제를 실용 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 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소년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의 일반교육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70~80%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는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영농, 축산, 원예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 '법무부 제1공공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 9개 소년원이 '법무부 제 2~10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안양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카일렉트로닉스, 증장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방,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사무자동화, 영상미디어 등 1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은 대부분 자격증화 할 수 있는 과정이 많다. 이는 범죄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과공부를 통해 일반청소년과 경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바로 취업이 가능한 영역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직업능력프로그램은 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자신감과 사회에서 냉대 받던 과거를 탈피하고 새로운 진로 선택으로 사회적 안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의식을 고취하고 삶의 능력 배양과 자신감 회복 및 성취감을 북돋워주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 학교는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명칭 및 교육과정은 표와 같다.

<표 III-13>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구분	기관 (학교명)	처우 과정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정보통신 학교	서울소년원 (고봉중·고교)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제과제빵, 영상미디어, e-sports)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 중·고교)	9호 위탁 - 인성교육(실용영어, 컴퓨터교육, 검정고시교육) - 분류심사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 학교)	9호 10호 위탁 - 중학교 교과교육(실용영어, 컴퓨터교육) - 분류심사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 학교)	9호 위탁 - 인성교육(실용영어, 컴퓨터교육, 검정고시교육) - 분류심사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 학교)	8호 9호 10호 위탁 - 인성교육(실용영어, 컴퓨터교육, 검정고시교육) - 8호처분자교육(제주지역 남자보호소년) - 분류심사
	정보산업 학교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 학교)	10호 위탁 - 직업능력개발훈련 (카일렉트로닉스, 자동화용접, 제과제빵, 헤어) - 분류심사 - 검정고시
		광주소녀원 (고룡정보산업 학교)	10호 위탁 - 직업능력개발훈련 (카일렉트로닉스, 자동화용접, 중장비운전 등) - 검정고시
		인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 산업학교)	9호, 10호 - 중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미용, 피부미용, 사무자동화) - 검정고시
		청주소녀원 (미평여자학교)	8호 9호 - 인성교육 - 8호 처분자교육(여)
	인문계 학교	대덕소년원 (대산학교)	7호, 8호,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의료·재활교육 - 8호처분자교육(남자보호소년) - 분류심사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12. 20 검색

(2)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1년(3년까지 연장 가능)동안 숙소를 제공하여 조기에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돕고 청소년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이다.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법무보호복지 공단 산하 5개의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소년보호협회 산하 6개의 생활관이 있다.

<표 III-14> 청소년자립생활관 현황

소 속		명 칭
법무보호복지 공단산하 자립생활관	5	은평자립생활관
		순천자립생활관
		송파자립생활관
		광주자립생활관
		안양자립생활관
소년보호협회 산하 자립생활관	6	경기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대전중부청소년자립생활관
		부산강서청소년자립생활관
		광주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안양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

입소 경로는 소년원 또는 소년교도소에서 (가) 퇴원 · 출소한 청소년에게 법원이 입소 명령을 내리거나 (가) 출소 전 사전면담 프로그램을 통해 입소하게 된다. 이 이외에도 무의탁 소년이나 지역의 가출청소년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자립 기반이 마련되거나 법령에 따른 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보호자의 인수 등의 이유로 퇴소하게 된다(서은경 · 윤옥경, 2008).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는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최순중·윤옥경·조남익, 2009).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들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격체로서 주인공 정신을 가질 수 있고, 사회생활에 동참한다는 기대감, 적성에 맞는 취업 등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자립생활관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 설	사회적응 프로그램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복지공단산하 생활관	· 집단상담 · 성교육, 금연교육	· 자립지원금 관리 · 취업교통비관리 · 통장 관리	· 검정고시 준비 · 일반학교 위탁교육 · 취업알선 · 기술교육
소년보호 협회산하 생활관	· 학업지도교육 · 문화체험학습 · 사회봉사활동	· 주민등록복원 · 자립보조금 관리 · 금융교육	· 진학, 편입학 · 검정고시 준비 · 산업체 현장견학 · 기술교육 · 취업 알선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청소년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개념을 빨리 습득해야 하며,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고 저축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생활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근검절약 교육, 금융기관 직원 초청 저축강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갖기, 월 단위 용돈사용 내역 점검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자존감 형성 및 용돈 사용방법 습득, 근검절약을 통한 저축의 생활화로 자립 기반 구축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

사회 정착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복학이나 편입학, 검정고시를 도와주는 학업 연계 지도와 기술학원 수강, 그리고 취업을 도와주는 취업 및 직업 지도 등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하는 직종별 취업 정보 제공, 직장내 태도 및 예의범절 지도,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 요령 등이다.

3. 소결

각 정부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 정책의 목적은 노동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 기회와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성인이 되었을 때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실질적인 자립을 희망하는 학교중단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직업훈련, 직업 경험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Help Call 전화상담 1388, 1388 청소년지원단,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를 통해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드림존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직업 기술, 직장 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일터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학교를 떠난 학교중단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통합·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은 학교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안전망의 구축이다. 즉,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은 일차적으로 잠재적 학교중단자에게 조기 개입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것이다. 2010년 현재 잠재적 학업중단자를 위하여 학교안전망 Wee Project가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 차원의 1차 안전망으로 Wee Class, 교육지청 차원의 2차 안전망으로 Wee Center, 교육청 차원의 3차 안전망으로 Wee School이 운영되고 있다. Wee 프로젝트는 단위 학교 및 지역교육청을 통해 상담 및 진로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잠재적 학교중단청소년 및 복교생에게 심리적·공간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학교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 서비스가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만 15~29세의 취약청년 대상),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만 15~29세의 취약청년 대상),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상),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등 취약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빈곤 청년의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자활인큐베이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자활·자립 경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여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범죄청소년을 수용·보호하여 비행을 단절·예방하며,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술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시설 퇴소청소년은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교육, 직업훈련, 취업 체험 등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IV.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욕구 및 현황

1.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관련 욕구
2.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관련실태
3. 소결

IV.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욕구 및 현황

1.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관련 욕구

학교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및 준비 실태에 관해 연구한 이경상·조혜영(2005)에 따르면 학교중단 청소년관련 지원기관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의 1/3이 넘는 35.6%가 취업형 청소년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소속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취업할 예정이거나(28.2%), 창업할 예정이거나(2.1%), 취업과 진학을 병행할 예정이거나(방통고, 방통대 진학)(3.0%),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 교육훈련을 받을 예정(2.3%)이라고 응답하였다¹¹⁾.

학교중단 청소년(대안학교 재학생 5명, 청소년쉼터 청소년 2명, 이동쉼터 및 보호관찰소 청소년 10명, 소년원학교 청소년 6명) 총 23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최동선·이상준(2009)은 학교중단 청소년의 진로관련 욕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현하였으나 실제로 자신의 진로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진로탐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

11) 이경상·조혜영(2005)은 소속기관 교육과정 이수 후 향후 진로설정에 따라 학교중단 청소년을 순수진학형, 아르바이트형, 취업형, 진로미결정형, 기타로 구분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5.4%가 다시 학교로 복귀(14.9%)하거나, 대안학교에 들어갈 예정이거나(4.2%), 상급학교로 진학할 예정이거나(18.2%),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에 들어갈 예정이거나(5.8%), 다른 학교로 편입학할 예정(0.4%)이거나 해외유학을 떠날 예정(1.8%)인 순수진학형 청소년이었다. 취업은 하지 않고 한 개 이상의 파트타임·아르바이트와 진학을 병행할 생각(1.6%)이거나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고 한 개이상의 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생각(3.0%)인 아르바이트형은 전체의 4.6%였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진로미결정형은 7.5%였으며 기타는 6.9%였다.

둘째, 특히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진입해 있는 학교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결손을 보완하는 학습능력 뿐 아니라 직업능력의 제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학업과 일자리가 병행된 기회 제공 필요). 이외에도 진로개발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 활성화 필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학교중단 청소년 72명(대안학교 청소년 23명,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21명,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18명, 특별한 소속이 없는 거리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집단인터뷰를 통해 개념도 연구법을 통해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을 조사한 서정아·권해수·정찬석(2006)은 다음과 같이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관련 어려움을 정리하였다¹²⁾.

개념도 연구법을 통해 ‘학교를 그만 둔 뒤 어려운 점’으로 도출된 사항 중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다, 3=그저 그렇다(보통이다), 4=중요하다, 5=매우 중요하다)상에 평정치가 3점 이상인 경우를 취업, 자립에 한정하여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 청소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학교 청소년의 경우 나이가 어려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다(3.36), 돈을 만지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3.57), 아르바이트하는 데서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면 나부터 의심을 받는다(3.57), 방학 때는 재학생들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다(3.71), 단가가 높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유혹이 많아졌다(성인 오락실 등)(4.00), 아르바이트 할 때 나이 어리다고 힘든 일은 나에게 다 시킨다(3.14), 아르바이트 하는 게 너무 힘들다(3.19), 부모님이 돈을 주시지 않아 하고 싶은 공부나 기술을 배울 수 없다(3.00), 미래가 막막하다(4.36),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 지 모르겠다(4.36),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3.57), 앞으로 뭐해먹고 사나

12) 연구에서는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 청소년의 공통적 어려움과 각각의 차별적 어려움을 도출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주로 공통적인 어려움을 중심으로 결과를 인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4.36), 혼자서 진로를 생각해야 한다(3.36), 모든 게 짜증스럽다(3.74),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다(3.50),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3.74), 신분증이 없어서 통장도 못 만들고 등본도 땔 수 없다(3.50),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내가 생각해도 수준이 딸리는 거 같다(3.71), 뭘 배우려고 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된다(3.50) 등이었다.

둘째,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학력이 걸림돌이 된다(3.83), 자퇴한 것 때문에 회사 면접 볼 때 불리하다(3.33),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학력을 따진다(3.67), 중퇴했다고 하면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3.50), 돈은 성인과 똑같이 내고 배우는데 월급은 어리다고 적게 준다(3.89), 공부 대신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다(4.00), 어린 나이에 취업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본다(3.72), 직업전문학교 전공이 한정되어 있다(3.17), 여자들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좋아하는 전공을 찾기 어렵다(3.78),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술을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4.22), 기술을 배워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3.89),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이 공부보다는 졸업장 따는 것에 치중한다(4.00), 직업전문학교 교육기간(1년)이 짧다(3.11),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오고 싶어도 면접에 떨어지면 들어올 수 없다(3.67), 직업전문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떨어질까 봐 눈치 지원한다(3.22), 미성년자라서 아르바이트 하기 어렵다(4.22),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도 중요한 기술은 하나도 안 가르쳐 준다(중국집 등)(3.50),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어렵다(3.78), 원하는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3.89), 기술학교나 직업전문학교가 있어도 기숙사가 없고 집이 멀면 다닐 수 없다(3.56), 나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혼자 힘으로 찾기 어렵다(4.17), 기술, 공부를 가르쳐 주는 곳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4.61),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만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3.33), 내가 하고 싶은 일(예: 댄스, 메이크업, 농사 등)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4.00),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3.83), 돈을 벌고 공부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3.28), 학교를 그만둔 나와 같은 아이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3.17), 할인 혜택 이외에는 청소년증을 쓸 곳이 별로 없다(4.11), 시설들이 국가로부터 인가받기 위해 수용인원을 줄이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내보낸다(3.33), 상담소나 교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하다(3.67), 상담소나 교육관의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다(3.17),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3.17), 미래가 불투명하다(3.06),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헤맸다(3.11), 이것마저 그만두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힘들다(3.78), 어디에서 진로 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3.67), 청소년을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4.11) 등이다.

셋째,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경우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데 귀찮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3.73), 폐인이 될까봐 걱정스럽다(4.00), 가까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3.00), 아르바이트 할 때 학교 안 다닌다고 일을 더 많이 시킨다(3.27), 끈기가 없어서 일하다 금방 그만둔다(3.04),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돈다(4.04), 아르바이트 하다가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을 때 그동안 일한 걸 받을 수 없다(3.36), 아르바이트 하는 게 너무 힘들다(3.18), 자퇴 당시 마음 먹었던 검정고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3.55), 학교를 그만 두니까 아는 지식이 없다(4.00), 고교 졸업장이 없어서 직장도 못 얻을까봐 걱정된다(4.55) 등이 있다.

넷째, 거리 청소년의 경우 커서 학력 때문에 차별 당할까봐 걱정이다(3.75), 밤과 낮이 바뀌었다(3.50), 졸업장이 없는 게 걱정이다(3.38), 취직이 안 될까봐 걱정이다(3.38), 학교 그만둔 것이 후회된다(4.25) 등이다.

오승근(2009)은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들과 그로 인해 사회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취업 및 자립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진로 적성 미결정과 직업탐색 기회의 부족, 경제적 자립 및 적합한 일자리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학교중단 청소년의 요구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구분형 외(2005)의 조사에서는 경제적 지원(47.8%), 진로취업지원

(42.7%), 학업지원(42.4%), 사회적 보호(41.3%), 여가 및 문화서비스(26.2%), 심리지원(2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아미 외(2009)의 조사에서는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이 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경험(16.8%), 복학 및 복교(11.7%), 기술교육 및 습득(10.9%), 취업(10%), 경제적 지원(7.5%)순이었다(오승근, 2009에서 재인용).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에 명확한 진로 계획을 갖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방황한다. 따라서 학교중단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통해 학교문을 나서는 시점부터 확고한 정체성 확립과 진로 결정이 될 때까지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오승근, 2009)

<표 IV-1>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상황과 사회적인 요구

문제상황	사회적 요구	지원 사항
개인적 고민과 심리적 갈등 정체성 혼란	개인 또는 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 점검, 개별 적인 도움 제공 필요	상담/심리지원
가정 불화 및 부모와의 불편한 관계	가족 연계 활동 프로그램 부모-자녀 상담 지원	프로그램 및 상담 지원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	친구관계 및 사회성 향상 프 로그램, 기성세대와의 연계 및 지지	
진로 적성 미결정 직업 탐색의 기회 부족	적성 및 진로 탐색 프로그 램, 취업 기관 인턴십 제공	진로 지원
경제적 자립 및 적합한 일자리 부족	아르바이트 및 창업 정보, 경제적 지원과 컨설팅	경제적 지원
학업 지속에 대한 아쉬움	학업지속 가능 기관에 대한 정보, 학비 지원 및 기초학 력 향상	교육 지원
삶의 질 향상 서비스 결핍 여유 시간 활용 장소 부족	여가취미 활동 프로그램 및 활동 공간, 활동공간 및 숙 식 해결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지원 및 활동 공간 제공

* 출처: 오승근(2009).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의 비판적 고찰: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21.

학교중단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을 조사한 안현의·이소영·권혜수(2002)는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검정고시학원, 쉼터 등 네 가지 유형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중단 청소년 9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학교를 그만둔 당시에 필요했던 도움을 살펴보면 대안교육(검정고시, 대안학교, 기술학교)이 2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로상담 20.5%, 심리상담 20.5%, 중퇴 이후 실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15.2%, 부모상담 8.9%, 기타 8.9% 순이었다.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이후에 겪는 어려움 중에서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딱히 할 일이 없다’가 2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다 18.9%, 돈이 없다 14.8%,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11.8% 등의 순이었다.

학교를 떠난 이후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타인의 지지(친구, 교사, 친척)가 2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 17.4%, 가족지지 14.5%, 미래에 대한 낙관적 믿음 13.8%, 기타 12.3%, 구체적인 진학, 취업준비 11.6%, 경제적 자립 8.7% 순이었다.

학교중단과 관련하여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내용을 받고 싶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로문제가 2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업문제 15.1%, 가족문제 13.7%, 심리적 문제 13.7%, 금전문제 11.6% 순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뒤 무엇을 할 건지 결정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56%, 그렇지 않다는 44%로 나타났다. 결정한 진로나 진학을 실제 실행에 옮긴 시점은 학교를 그만 둔 뒤 언제부터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교를 중단한 이후 과반수 이상이 학교를 그만 둔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1개월 이내에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25.0%이었고 1년 이내는 43.4%, 그리고 1년 이상은 2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도탈락 청소년의 약 3/4 정도가 학교를 그만둔 직후 그 다음 진로로 바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전국의 학교중단 청소년 1,010명을 대상¹³⁾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금명자·권혜수·이문희·이자영·이수림(2004)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하고 싶었던 계획의 성취 여부를 살펴보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 나름대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사대상자의 28.0%만이 당초 계획을 성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중단 청소년의 경우 계획을 성취한 경우가 33.5%인 반면, 중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중단 청소년의 경우는 당초 목표를 성취하는 비율이 중학교 학교중단자 28.0%,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중단자 24.7%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하였던 바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학교중단 청소년 727명(72.0%)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중복 응답), 조사대상자의 47.3%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노는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다(41.2%), 끈기가 없었다(38.3%),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30.6%)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45.9%가 처음 계획대로 안 된다고 답변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막막함(43.5%), 친구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39.9%), 부모님과 갈등(33.4%), 비행에 대한 유혹(27.3%)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58.4%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검정고시 준비(40.1%), 전문능력 키우기(39.7%), 취업이나 기술 습득(35.7%), 수능준비(23.7%), 복학(17.5%), 유학(11.3%), 놀기원함(9.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서 조사대상자의 17.5%만이 복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보다는 취업을 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도움의 필요성 지각 정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44.2%가 ‘예’ 55.8%가 ‘아니오’ 라고 응답하였다.

13) 조사가 의뢰된 기관 등은 검정학원, 교정수용시설, 일터, 보호관찰소, 학력인정 시설 및 대안학교, 쉼터, 직업전문학교, 하는 일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이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여부를 질문한 결과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가 31.4%,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가 68.8%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 121명(31.4%)을 대상으로 도움을 요청한 기관을 살펴보면 상담실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복지관(18.8%), 쉼터(16.5%), 대안센터(12.0%), 직업훈련학교(9.8%), 수련원(4.5%)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기관에서 도움 받은 내용으로는 정보제공(51.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민 들어줌(49.8%), 인격존중(45.9%), 자원부족(12.8%), 사회적 편견(12.0%)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도움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어디에 요청해야 될지 막막했다는 의견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다 23.7%,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다 22.1%, 미리 포기하였다 17.1%, 편견이 싫어서 12.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중복 응답), 조사 응답자의 55.3%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중단청소년=문제청소년’이라는 편견을 없애야 한다(51.5%),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졸업장을 얻을 수 있는 대안교육 기회를 늘려야 한다(48.2%), 혜택이 다양한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한다(42.0%), 기술을 배우거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돈을 지원해 줘야 한다(36.5%) 순이었다.

관련정보를 전달받고자 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이 4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화문자 31.6%, 소식지 29.8%, 상담 방문 18.6%, 홍보물 17.5% 순으로 나타났다.

2.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관련실태(현황 및 문제점)

다양한 양적 연구결과에서 정규학교에서 이탈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특별한 진로준비의 과정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불완전한 취업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동선·이상준, 2009).

학교중단 청소년(대안학교 재학생 5명, 청소년쉼터 청소년 2명, 이동쉼터 및 보호관찰소 청소년 10명, 소년원학교 청소년 6명) 총 23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학교중단 이후 진로관련경험, 진로에 관한 계획 및 요구¹⁴⁾를 살펴본 최동선·이상준(2009)은 학교중단 청소년의 진로관련 실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지만 특정 일자리에서 장기근속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는 학교중단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란 ‘용돈을 구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경제적인 생활 영위의 미흡). 이로 인해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단순 노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속기간 또한 짧다(짧은 근속기간과 잦은 이직).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무언가를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는 불가능하며(진로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보수집이나 구직활동도 체계적이지 않아서(아르바이트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의 부족) 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래로부터 아르바이트 구직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14) 최동선·이상준(2009)의 학교중단 청소년 대상 심층인터뷰 문항 중 취업 및 자립에 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학교중단 이후에 진로와 관련하여 어떻게 정보를 획득하고 어떠한 생활을 하였나요? 그 생활에 만족하였나요?
-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직업훈련이나 기술 및 자격증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검정고시, 취업, 대학 진학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요?
- 계획을 위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진로 계획을 성취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현재 학교 중단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도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둘째,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막연함’을 호소하고 있다(막연한 미래와 진로). 학교를 중단한 현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매우 드물었으며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진로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결여).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진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이들의 진로인식(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이나 진로탐색의 기회(제한적인 진로정보)가 매우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연구자는 해석한다. 학교중단 청소년의 진로탐색 노력이나 태도 또한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다(진로계획 실천에서의 주도성 상실). 결과적으로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폭넓은 진로탐색과 적극적인 진로개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학교중단 청소년이 취업 및 자립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실천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 즉 인적 네트워크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진로탐색 및 진로개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제한).

학교중단 청소년 72명(대안학교 청소년 23명,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21명,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18명, 특별한 소속이 없는 거리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정아·권해수·정찬석(2006)은 다음과 같이 청소년 유형별로 두드러지는 실태 및 현황 특성을 정리하였다.

첫째,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이나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거리 청소년에 비해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크게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 관련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살펴보면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한당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더라도 신체적으로 힘들고 보수가 적은 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인 피곤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문제 청소년’이라는 어른들의 편견으로 인해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면 우선적인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안 학교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구직, 특히 방학기간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낮은 아르바이트 급여로 인해 ‘단가가 높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유혹이 많아졌다’고 응답하여 다양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 개발과 더불어 유해한 아르바이트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혹은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의 추천으로 직업훈련과정에 들어왔다는 점,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주로 하고 있으며 비교적 엄격한 학사관리로 지역사회와 직접적인 접촉을 할 여유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연령이 다른 생활영역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방황과 목표상실, 가족 간의 갈등시기를 지나 학교중단 청소년으로서의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생활영역의 청소년처럼 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편견, 어른들의 무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신에 자신의 미래와 관련한 도움의 부족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이 힘들어하는 영역에 대한 특징들은 다음과 정리될 수 있다. ①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과 달리 직업훈련이 끝나는 대로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학력의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업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 대신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고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이른 나이에 취업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었다. 인터뷰를 실시한 직업전문학교들은 대부분 학교중단 청소년의 학력의 장벽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더 많은 시간의 기술훈련을 통해 정규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대신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② 직업훈련의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몇몇 직업훈련 시스템의 한계점을 지

적하고 있다. (㉠) 청소년들은 직업전문학교 전공이 한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기술교육을 위해 다양한 설비와 실습장비가 필요한 직업전문학교의 특성상 다양한 전공을 개설할 경우 이에 따른 설비구입 비용 증가와 관련교사의 추가 채용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또한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 기술을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직업전문학교의 부족과 사설학원의 엄청난 교육비용은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기술을 배우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게 된다. (㉢) 또 다른 한계점은 직업전문학교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 청소년은 적절한 전공의 부재와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추가적 차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여전히 학문과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큰 학교중단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교육시킨다는 것 또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직업전문학교 수용가능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원하는 청소년 모두가 직업전문학교에 다닐 수 없는 점도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③ 다른 생활영역의 학교중단 청소년에 비해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적극적임에도 여전히 그들은 환경적 뒷받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오기 전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혼자 힘으로 찾기 어려웠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학교나 직업전문학교가 있어도 기숙사가 없고 집이 멀면 다닐 수 없다고 하여 거리상의 근접성, 기숙사 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곳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한 점 또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중단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국가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기존에 있는 다양한 학교중단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홍보 또한 미비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경우 일정한 소속이 있는 대안학교나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에 비해 정기적인 생활교육프로그램, 관련된 도움의 지원이 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집에 있으며 할 일이 없어 TV를 보거나 누워서 뒹굴기 일쑤이며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끈기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있으며 학교 다닐 때 보다 외박 횟수가 많아져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외박이 잦아지는 경우 숙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비행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비행 경험이 있는 소년선도보호시설의 경우 다른 학교중단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유혹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시간을 규율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넷째, 거리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 중단 청소년이 학교 중단 후 자유를 만끽하는 기간을 거쳐 고민과 방황의 기간 후 적응 혹은 비행후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상대적으로 학교중단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생활영역에 비해 거리 청소년의 학교 중단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도 이런 측면과 관련이 있다. 거리 청소년의 경우 자신들의 어려움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문제 인식 수준이 낮다고 하여 이 유형의 문제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지적한다. 일반청소년에 비해 학교중단 청소년이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청소년들은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에 대해 “힘든 점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아무런 준비나 지원 없이 학교 밖으로 청소년을 내모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상의 문제로 청소년이 그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학교중단 청소년기를 독특한 발달 단계 중 하나로 간주할 경우 거리 청소년기는 비교적 초기에 속하며 이 시기는 학교중단 청소년이 복교를

선택할 지,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할지, 대안학교로의 진로를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은 비록 조그만 조치일지라도 추후 학교밖 생활에 중대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요약컨대 연구자들은 학교중단 청소년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정부위탁 훈련생 273명(교육생 218명, 탈락생 55명)을 대상으로 직업전문학교 재학 청소년의 직업교육 훈련 비효율성에 관해 연구한 김태혁(2004)은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으로 훈련생들의 높은 중도 탈락률을 들고 있다. 학생들의 고민문제는 취업, 진학, 병역, 이성문제 순이었으며 훈련생들의 탈락 주요인은 외부친구와의 어울림, 가정사정, 목적의식 없는 주위의 권유에 의한 입학, 학교가 싫어서, 학습부담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대해 살펴본 이경상·조혜영(2005)은 학교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유형을 크게 (가)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정규직업을 가지려는 순수 진학형, (나)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채로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는 취업형, (다) 아르바이트를 갖고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면서 독학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단된 학업을 마치려는 생각도 취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아르바이트형(방임형)으로 나누었다.

조사결과 기관(인가·비인가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쉼터, 선도보호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 소년원 등)소속 학교중단 청소년의 경우 순수진학형이 45.3%, 취업형이 35.6%, 아르바이트형이 4.6%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교중단 청소년들도 7.5%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취업형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현재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직업적성검사(51.5%), 면접훈련(30.3%), 취업상담(42.0%), 취업박람회(18.6%), 이력서 제출(25.1%), 구직정보 인터넷 게재(22.7%), 취업부탁(50.3%), 현장실습(27.5%), 자격증 획득(23.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양한 취업노력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취업상담이나 직업훈련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설정은 진학형과 취업형으로 크게 구분이 되며 취업을 염두에 두고 진학준비를 하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불확실한 유형도 있었다. 특히 취업형 청소년들은 직업훈련을 받을만한 적절한 지원기관을 찾기 못해 대안교육기관이나 학원 등을 찾아다니며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기관 소속유무에 관계없이 진로 준비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나 지도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3. 소결

학교중단 청소년의 욕구와 현황,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진로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직업훈련을 받을만한 적절한 지원기관을 찾기 못해 대안교육기관이나 학원 등을 찾아다니며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중단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더불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 지 몰라 했으며 스스로 자신의 진로설계를 하는 것을 어려워 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약 3/4 정도가 학교를 그만둔 직후 그 다음 진로로 바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금명자·권해수·이문희·이자영·이수림, 2004).

셋째, 학교중단 청소년은 귀찮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은 등의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1/4이상의 청소년이 심리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구본형 외, 2005; 오승근, 2009에서 재인용).

넷째,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단순 노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적인 직업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회성의 활동에 그치고 있으며 근속기간 또한 짧았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섯째, 학교중단 청소년은 경제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과반수에 가까운 학교 중단 청소년이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지속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금명자·권해수·이문화·이자영·이수림, 2004).

여섯째, 낮은 학력으로 인해 추후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학교중단 청소년의 1/2 가량이 대안교육 등 다양한 학업기회 제공 및 관련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원 중 하나라고 하였다(금명자·권해수·이문화·이자영·이수림, 2004).

일곱째, 학교를 떠난 이후에 가족, 친구, 교사, 친척 등 타인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안현의·이소영·권해수, 2002) 이에 대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덟째, ‘학업중단청소년=문제청소년’이라는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홉째,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체계에 개선점(여자 청소년이 배울 수 있는 전공의 부족, 직업훈련기회와 기간의 제한)이 존재하였다. (㉡) 훈련생들의 높은 중도 탈락률로 직업교육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었다. 훈련생들의 탈락 주요인은 외부친구와의 어울림, 가정 사정, 목적의식 없는 주위의 권유에 의한 입학, 학교가 싫어서, 학습부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혁, 2004).

열 번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진입해 있는 학교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결손을 보완하는 학습능력 뿐 아니라 직업능력의 제고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최동선·이상준, 2009).

V.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관련 사례 조사 결과

1. 연구방법
2.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개선방안
3. 소결

V.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관련 사례 조사 결과

1. 연구방법

학교중단 청소년이 생각하는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청소년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관의 협조를 얻어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경지지역의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및 이동쉼터, 소년원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례조사 대상 청소년은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을 할 생각이 있다” 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1> 사례조사 참가 학교중단 청소년 세부사항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연령	남	6(50.0)	거주지역	서울	6(60.0)
	여	4(40.0)		경기	4(40.0)
	계	10(100.0)		계	10(100.0)
학교를 그만둔 시기	중학교	2(20.0)	학교를 그만둔 기간	1년미만	2(20.0)
	고등학교 미진학	2(20.0)		1년이상 2년미만	4(40.0)
	고등학교	6(60.0)		3년이상	4(40.0)
	계	10(100.0)		계	10(100.0)
소속	대안학교	2(20.0)	나이	16세	1(10.0)
	청소년쉼터	2(20.0)		17세	2(20.0)
	직업전문학교	2(20.0)		18세	2(20.0)
	보호관찰소 및 이동쉼터	2(20.0)		19세	3(30.0)
	소년원	2(20.0)		20세	2(20.0)
	계	10(100.0)		계	10(100.0)

주된 질문사항은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과 관련한 경험”, “취업자립 준비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 그리고 “학교중단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도움이나 변화되었으면 하는 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2.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개선방안

학교중단 청소년이 생각하는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개선방안을 취업자립과 관련한 경험, 취업자립 준비를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 학교중단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도움이나 변화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취업, 자립과 관련한 경험

① 자기관리의 어려움

학교중단 청소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학교중단 이후 구속하는 학교제도로 벗어나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지만 장기적으로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 학교 그만두고 제일 어려운 건. 음. 그건 자유가 있기에 흐트러지기 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망가지기 쉽죠. 으... 저도 점점 망가져 가는 중인 것 같아요.”

“ 학교 그만두고 나서 약속 있는 날 빼곤 그냥, 컴(컴퓨터)하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② 학교중단 이후의 무기력감이 진로의식 무기력감으로의 연결

학교중단 청소년의 경우 이전부터 부모가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하지 않고 방임해왔던 경우가 많으며 학교중단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무기력감과 규칙적인 생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학교중단 이후에 부모의 실망과 더욱더 강화된 무관심, 그나마 있던 학교 규칙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류로 이러한 생활습관과 태도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더욱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의 어려움은 무기력감으로 이어지며 생활의 전반에 무기력감이 진로, 취업자립에 대한 무기력감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 앞으로 미래나 꿈 이런 거 없어요. 검정고시는요? 떨어졌어요(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그냥....”

“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학교는 안 갈 꺼예요... 한참 동생들이랑 해야 되니까... 그게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뽕족한 수도 없지만... 그냥 앞으로 안 되면... 일단 몸으로 해 먹는 것 그런 거나 할까... 고민은 해봤긴 해봤는데...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③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적절한 도움이나 정보로부터 격리된 채로, 자신의 앞으로 삶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을 경험하였다.

“ 진짜 막막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구요. 그냥 학원을 다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말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

고. (직업전문학교) 이런 거 모르고,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 그런 애들이 이런 데를 알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씩 잡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데를 모르면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잘못하다가는 사고 치고... 소년원 가고...”

“ 좋아하는 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그냥 뭘 잘 해서 그 쪽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그러면 그런 고민에 대해서 쉼터 선생님이나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아는 언니나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음..없어요...그냥 막막해요..어디부터 해야 할지...”

“ 미래를 생각하면서, 목표를 딱, 장래희망을 딱 생각을 해 보면. 조건이 많잖아요. 나는 아는 것도 없지... 공부도 안하지.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생각도 없고. 예전에는 꿈이 있었는데요. 그걸 할려면 대학을 가야하는데.... 옛날에는 미래 생각 안하고 그냥 살았는데요. 성적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막막한데. 너무 늦게 안 것 같기도 하고...”

“ 딱히 내가 뭐 한 가지 할 걸 못 정해서 불안한 거 같아요. 지금은 그니까 뭐 하고 싶다는 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지금 안 되구요. 그걸 시작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구요. 만약에 직업적으로 하려면... 에이... 그런 길도 확실히 안 보이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④ 진로계획 실천에서의 주도성 상실

또한 이들은 무기력감과 자신에 대한 자신감 부족, 다양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진로를 스스로 찾아나가고 계획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부모나 친척 등이 원하거나 추천하는 대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엄마가 대학교 가지 말고 그냥 회사 같은 거 취업하래요... 자격증 같은 거, 기술 배워서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요. 자격증 같은 거 따려고요. 학원 다닐려고 하는데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맨날 미루다 보니 아직까지... 그냥 주위에서 제가 잘하는 거 해보라고. 네일아트 같은 거 해보래요...”

⑤ 긍정적 측면. 이른 사회생활의 경험, 빨리 어른이 되는 아이들

반면에 모든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무기력감이나 방향성의 상실, 주도성의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중단한 이후 겪게 된 다양한 사회생활경험과 이에 따른 자기 나름의 철학이나 자신감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이고 진취적으로 찾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이른 사회생활이 스스로를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딴 친구들(학교 다니는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알바(아르바이트) 라곤 딱 두 번 해봤는데... 깨달은 게 많아요. 그리고 별별 사람들도 다 있어서... 사람 대하는 방법도 느는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막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무리 나쁜 소릴 하고 못되게 굴어도 돈을 벌려면 죽은 척 일해야 겠다’ 라는 걸 느꼈어요. 음... 사회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⑥ 기존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 기관의 순기능: 딱딱해 하던 아이들에 게 진로를 찾아주는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

이 과정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 등 현재의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지원기관이 자신의 진로를 찾는데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취업자립지원기관의 세세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본래의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취업자립지원기관의 수와 수용인원이 취업, 진로지도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저희 학교(대안학교) 오면 주로 직업 찾는 걸 도와줘요....사실 옛날 학교(정규학교)에서는 그런 거 잘 관심 없잖아요... 공부나 하라고 하지... 사실 나는 공부 취미 없는데... 나는 일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근데 여기는 수업시간에 직업체험, 직업특강 그런거 많이 해요... 자기 직업 찾기. 저는 이제 뭐 해야 할지 좀 생각하고 그래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로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다행이지요 뭐...”

“ 솔직히 일을 해봤자 저희 나이엔 주유소나 배달이나...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냥 돈 받으면 일 안하고 그 돈 다 쓰고 다시 일하고 그래요... 저금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뭐 길게 일해 보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여기 와서 선생님 말씀 듣고 직장에 대해 이야기 듣고. 개념이 없다가 개념이 생긴 거예요. 여기가...”

⑦ 방황과 오랜 고민기를 거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깨닫고 가지고 있는 아이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아이들.

연구결과 일부 학교중단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의 적성과 희망을 잘 파악하고 자신이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

로 노력하고 그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진로의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우리들이 흔히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해 가지는 선입견(무기력감, 자신에 대한 통제감 상실,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과는 달리 비록, 중간과정에서 약간의 경비행이나 방황기를 겪었더라도, 그 과정을 딛고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경우 학교생활에 따라가느라 스스로의 진로나 적성에 대해 고민해 볼 기회가 없는 학교청소년보다도 더 진지하게 스스로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경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비교적 타인의 시선이나 편견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오히려 성인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스스로의 진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나가고 있었다.

“ 저는 PC 정비사 할려고요... 컴퓨터 튜닝 배우고 있거든요. 컴퓨터 꾸미는거...(컴퓨터 튜닝?) 그게 뭐냐면 그 컴퓨터 꾸미는 게 있어요. 안에 막....(조립하는거?) 아니요... 조립은 정비구요.. 튜닝은 요... 왜 컴퓨터 보면은 밖에 딱딱한 케이스 있잖아요. 그 케이스를 내가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아. 그렇구나..선생님은 처음 듣는데...) 튜닝. 제일 잘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명 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예요. 그게... 컴퓨터... 그런데다. 그림 그린다고 보면 되요. 자기가 본체 모양을 막 바꿔요... 우리나라에서 대박 작품이 세 개 있는데요. 진짜 멋있는 건..거북선 컴퓨터..나무로 되었는데요...그 거북선 눈 누르면 전원 들어와요... 그거 아무래도 제가 딱 생각하기에 그거 잘 배워 놓으면 나중에 좀 먹힐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개성적인 게 좋잖아요... 근데. 학교 안 다니면 좋은 점이 그거예요. 자기 진로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다른 애들이 학교 다 졸업해서 대학 가고 그때 가서 이렇게 갈 거를... 우리는 다른 애들보다 지름길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한 길이에요. 무조건. 일단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도전할 시간이 있죠. 도전 할 시간은 많죠. 도전. 그러니까.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해봐야 알죠. 자기가. 이렇게 해 보면 되겠구나... 계속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한 이 십개는 해본 것 같거든요? 진짜 안 해본 거 없어요... 편의점도 해봤고. 피시방도 해봤고. 노가다도 해봤고... 딱 일단... 한번 느껴 볼라 그랬어요. 학교 관뒀더니 엄마와 아빠가 그러드라고요. 너 커서 노가다나 할래?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나... 진짜 한번 느껴 보고 싶어서 나갔어요. 노가다도 해보고, 인테리어도 해보고, 간판가게에서 간판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디자인도 해보고 막... 별거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아예 상관을 안했어요. 밤을 새든 말든. 그러다가 뭐해 먹고 살지...생각하다가...PC 본체 만드는 걸 생각해 냈어요.”

“ 저는 강하게 크고 싶었어요...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다... 그까... 그렇게 조언해주고... 어떻게 해봐라. 어떻게 해봐라... 그런 거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갔고 지가 먹고 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데로 내가 해 가지고 내가 그게 대박 나면은 딴 사람보다 더 내 실력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고, 딴 사람들이 내 실력을 따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능력을... ”

“ 자기가 만약에 그걸 진짜로 하고 싶다면, 인터넷을 뒤져서든 뭐 그 거에 뭐 제일 잘하는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보든 쫓아 다니면서. 자

기를 가르쳐 달라고 하든. 그렇게 하겠죠... 길잡이는 저희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 두면 좋은 점은. 자립심이 좀 늘어요... 학교 나오면.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 저는 하고 싶은 일 쪽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이쪽 일 (스타일리스트 희망)에서는 학력이 상관이 별로 없거든요 저한테 적성에도 잘 맞고 편견도 없는 것 같아서 잘 고른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랑 헤어랑 코디랑 3개를 다 합친 거 하고 싶어요. 좋아요. 학교안다니면 여자애들은 만만한 게 미용이라고 미용 학원 다니는 애들 많은데... 근데 진짜 하고 싶어서 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요... 학교안다니니까 뭐라도 해야할 꺼 같으니까 여자애들은 공장 기술... 그런 건 별로니까... 미용 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하고 싶어요....”

“ 옛날부터요. 행동은 안하면서 책으로만 배우는 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 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한다고 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거 같아요. 학교에서의 공부는 다 그냥 책으로 배우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두고 여기 실습하러 온 거예요.. 학교 관두고 좀 고민 좀 하다가 제가 그냥 인터넷 찾아서 왔어요...”

⑧ 중요한 정보원으로서의 인터넷과 주변인들의 역할

또한 학교중단 청소년이 진로와 직업에 관한 훈련과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넷과 주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의 정보전달 기능이 매우 두드러졌는데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대부분이 인터넷을 매우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하겠다. 변숙영·이수경·이종범(2009)은 오랜 기간 직업도 갖지 않고 학업도

하지 않는 니트족 청소년일지라도 인터넷은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인터넷은 청소년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부정적 요소(지나치게 게임 등에 몰입하는 등)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교중단 청소년에게 진로, 취업은 물론 사회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정보원은 청소년이 자주 접촉하는 주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립관련 방향설정,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인터넷과 주변인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 제 친한 친구가 먼저 들어왔어요...그 친구가 이야기해줘서 알았거든요... 친구 먼저 오고... 전 나중에 들어오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친구가 여기 학교 안다니는 애들도 들어와 기술을 배워서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기술배우라고 그래서 알게 되어서 오게 되었어요.”

“ 제가 성당을 다니는 데 학교 안 다니는 걸 알게 되니까.. 수녀님이 여길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가면 용돈도 주고 기술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와 봤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 제가 좀 방황을 했거든요... 저희 삼촌이 좀 주먹을 쓰시는데... 어느 날 죽을 만큼 맞았어요... 자기처럼 살면 안 된다고...그리고 여기 알려주셔서 들어왔어요...”

“ 인터넷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그냥 여기 저기 찾다가...”

2) 취업자립 준비를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

다음으로 취업자립 준비를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①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의지의 부족

학교중단 청소년에게 있어 취업자립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이를 찾으려는 의지가 부족한 점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그런거 관심도 없고 귀찮아서 안 찾아봤어요... 따고 싶은 자격증이나 기술 같은 것도.. 제가 기술이 뭔지 몰라 가지고... 자격증도 따면 따고 싶은데...”

② 직업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이로 인한 제한

취업자립을 하는데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자신이 받고자 하는 직업교육이나 대안교육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었다. 직업전문학교 등이나 소년원 학교의 경우 직업훈련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지만 이러한 기회 또한 제한되어 있어 많은 학교중단 청소년이 스스로가 원하는 교육을 자비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자 시도한 청소년들도 이러한 경제적 제한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취업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학교 관두고...막상 뭘 하려고 해도요..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집안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뭘 그냥...시작하기가 조금 그래요. 학원비도 써야 되고, 비싸요...그리고 대학도 가고 싶긴 한데...학비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도... 지금은 그래요...”

“ 대안학교 학비요? 내요... 근데.. 싸요 1년에 몇 십만원인가? 근데 후원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대안학교들 있잖아요? 거기는 장난 아니에요.. 아무나 못 가요...대학학비 정도 되니까...”

“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여기서 인턴도 나가고 그러는데... 요즘엔 뭐 만들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지금 가지고는 안되니까... 근데... 집에다가 나 배우겠다. 돈 달라 그럴 수는 없어서 돈을 모아서 배워야겠다... 그러고 있죠...”

③ 진로탐색 및 진로개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제한

학교중단 청소년은 진로탐색 및 진로개발을 지원하고 지지해줄 주변의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였다.

“ 딱히 진로나 제가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친구가 도움을 줄 수도 있어도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속얘기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지.. ”

④ 기존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지식 및 홍보 부족

또한 기존에 있는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기관 또한 학교중단 청소년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많은 학교중단 청소년관련 기관과 프로그램, 지원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학교중단 청소년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 학교중단 이후 취업자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 자립 및 생활지원을 위한 기존의 정책, 프로그램의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혹시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을 위해 프로그램 하고 있는 곳 아세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수련관이면 수련회 때 가는 것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해 국가나 이웃에서 어떤 도움을 해 주었으면 하세요?) 음.. 솔직히 그런 것 디게 많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거요. 근데 솔직히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진짜로 없을걸요? 그니깐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게 학교 나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좀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멀리 있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 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걸 해도 모르면 쓸모 없잖아요.”

⑤ 진로체험에서 경험하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 학교중단 청소년과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

학교중단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기술훈련, 진로체험과정 등에서 학교중단 청소년과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취업진로 의지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력부족으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스스로 혹은 주변사람의 권유로 시작한 기술훈련과정에서 타인들의 편견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작년에 직업체험을 갔는데... 복싱선수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 복싱체육관을 갔어요... 근데 거기 관장님이 학교 왜 안 다니냐고 우리를 혼을 내시는 거예요. 자기도 딸 있는데 어찌고 저찌고... 하하..”

“ 솔직히 기술 배우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긴 하잖아요... 대학을 나와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랑 그냥 대학 안 가고 배우는 사람이랑... 솔직히 제가 더 잘해도 일단 학교를 나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도 학교 나온 사람한테 기회를 먼저 주는거.. 그런거 심해요. ”

⑥ 원하지 않는 취업교육을 받는 경우의 문제: 적성에 따른 취업진로 선택이 아닌 기존에 지원하는 직업훈련 중에서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아이들

학교중단 청소년의 일부는 가족이나 주변의 권유로 취업 및 진로훈련을 받고 있으나 취업진로기관의 취업교육내용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진로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그냥... 학교 그만두고 나서는 사실... 별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학교 오면 되면서 취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게 다 다르잖아요... 이 곳에 들어왔는데... 적성에 잘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하는 게 없고 하고 싶어도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게 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할 것 같고... 그냥 이걸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학교중단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등의 부족으로 자신이 가장 원하는 취업진로교육보다 기존에 제공되는 교육 중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교육과정을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 이렇게 선택한 교육과정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 (지금 전공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그나마 여기 있는 과 중에서 관심이 있는 것 중에서 선택했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컴퓨터 응용과랑 전자카드, 전자과 있는데....그래도 다른 데보다 전자과가 들어오기 쉽다고 해서요.”

“ 대부분 아는 사람이 소개해서 와요. 저는 우연히 전에 여길 졸업했던 분이 소개해주셔서 오게 됐어요. 저는 원래 하고 싶던 게 이게 아닌데... 우선 와 보기는 했지만... 여기는 이런 것 밖에 없으니 무조건 이거 해라 이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⑦ 직업전문학교에서도 차별 받는 아이들: 청소년만을 위한 직업전문학교의 확대 필요

대부분의 직업전문학교는 청소년 뿐 아니라 취업가능연령 전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중단 청소년이 성인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인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은 추후 학교중단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청소년은 모든 연령이 함께 훈련 받는 직업전문학교 생활에서 성인 위주의 교육훈련내용, 성인 훈련자와의 차별, 성인훈련자의 청소년훈련자에 대한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청소년 비율이 매우 적어 교사가 청소년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거나 청소년에게 맞는 직업훈련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 학교 관두고 집에서 1년 쉬었어요... 이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여기를 알게 되었는데...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면접 보러 왔는데... 면접 볼 때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 둔거에 대해 편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어른들이 많고 제가 제일 여기서 나이 어리고 그래서 좀. 그래서 좀 그런 점도 힘들고...”

⑧ 취업진로를 찾는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거리와 건강

취업교육과정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설이 지나치게 멀거나, 엄격한 직업훈련을 견딜 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직업훈련을 지속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제가 원래 컴퓨터 쪽이 맞아서 컴퓨터 쪽 하는 학교를 갔었는데... 근데... 학교에서 혜택은 많은 반면에... 집이 시골이라 학교가 멀어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교에서 이거저거 활동하면 집에 한 밤 12시쯤 도착하고... 씻고 숙제하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세 네 시간 밖에 못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 지나니까 제가 원래 몸이 좀...원래 지병이 있는데 생활이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할 수 없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거 그만두고 여기 직업학교 왔는데...여기는 그래도 기숙사라 왔다갔다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여기도 1년에 많이 가르쳐서 내보낸다고 뽕세게 가르치거든요... 2학기 때는 밤12시까지 수업하거든요,....하기는 해야 하는 데... 계속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요... 그래도 계속 하고 싶은데... 몸이 벌써 많이 힘이 들어요...”

3) 학교중단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도움이나 변화되었으면 사항

학교중단 청소년들에게 현재 자신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도움이나 변화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양질의 국가차원의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

홍보 부족이나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시되었지만 학교중단 청소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육, 상담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보다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여기 과정이 1년이에요... 일 년 끝나면 취업 할 수 있구요... 그 전에도 조기 취업이라고 해서 일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학교가 이제 좀 유명해져서 학교로 일자리가 들어와요... 일자리가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쭉욱 보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먼저 일을 보내 주고요... 학교 안 다니는 저희 경우는 사회 나가면 일반인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1년을 다 마치지 않아도 취업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도에서 운영하는 데라 선생님도 많고, 지원도 잘 해주고 그래서 취업도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이런 거가 있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② 여자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커리큘럼 다양화 필요성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커리큘럼이 보다 다양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강하였는데 이는 직업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은 주로 기계, 전기 등 주로 남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과정이 일부 분야에 치중되어 스스로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남자청소년과 더불어 여자청소년도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미용, 예술, 요리, 공예, 최신 IT 분야 등 여자 청소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직업훈련기관 커리큘럼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실 우리 학교(직업전문학교) 전체로 따져도 여자가 10명 밖에 없거든요...그게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여기 전공이 다 기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요즘 학교를 안다니는 여자애들이 대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처럼 기계 배우러 여자애들이 이런 학교를 다니기도 쉽지 않은거 같아요... 개들이 그렇다고 제대로 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따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가 싫어서 학교를 나왔는데 뚜렛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시설은 좋은데... 여자애들이 할 수 있는 전공이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취업 같은 경우도 사실 정확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위탁생까지는 취업이 가능한데. 저희는 전자과인데 남자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A/S기사도 할 수 있고... 여자가 전자과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생산직 막말로 공순이, 아르바이트... 그런 거 밖에 없어요... 단순 노동하는 거... 회사 들어가 봤자 그런 거 밖에 없어요. ”

③ 진로탐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

기존의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청소년들은 여전히 낮은 체감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국가가 학교중단 청소년의 진로지원, 진로탐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며 진로지원, 진로탐색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로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은 적은 없어요... 전혀... 받을 생각은요? 있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뭘 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것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것... 내가 뭘 잘 할 수 있는지... 저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스처럼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과학전시 그런데 가면 부스별로 짝 놓고 여러 가지 일들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한다고 너무 심각하고 그런 거 말고... 좀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루하지 않고 활동적인 것, 그러면... 솔직히 애들은 재미없는 거 싫어하잖아요. 강당 같은 데서..막 함께 그냥 움직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 (진로탐색 프로그램 같은거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센터에서... 그런데 그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테스트 하다보면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쓰는 경향이 생겨요.... 읽어보고 아, 이걸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딱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걸로는 딱 자기 성향에 잘 맞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잘하지는 못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나오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결과... 내 생각엔 내가 좋아하는 거지 크게 소질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진짜 궁금한 것은 내가 진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소질이 없는데 연습 하다보면 하는 경우도 있고...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계속 하고 하다 보면 의외로 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것을 아직 모르니까... 그걸 알려 줬으면 좋겠는데...”

④ 취업자립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현장성 있는 취업진로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었다.

“ 센터에 옷 배우려고 잠깐... 너무 싸다 싶어 바로 등록했는데요... 너무 부실했어요. 제가 잔뜩 기대를 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

했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 실망했어요. 처음에 OO 센터 텔레비전에서 보고 직접 찾아가서 등록했어요... 선생님은 한 분 계셨어요... 나는 나 같은 아이들(학교 안 다니는) 오는 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일반 사람들도 많았어요. 선생님은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재봉틀 같은 것도 그냥 해보라고만 하고 그랬어요.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며칠 나가고 말았어요.”

“ 근데 솔직히 여기서 기계 만지는 것 하고 나가서 기계 만지는 것 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공장 하시는데 여기서 배운 건 거의 못 써먹어요... 저는 당장은 힘들어도 차라리 알려 주려면 진짜 뻥세게 배워서 나가야 보람도 있고 그럴텐데 생각해요...”

⑤ 기존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선호: 학교 중단 청소년이 원하는 형태의 시설, 프로그램 변화 필요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시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나 보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선호하는 교육형태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이동쉽터가 좋긴 해요... 근데 보통 애들은 이런데 잘 안 갈려고 하잖아요? 조금 어색하고 그런 거니까. 저도 본 적은 있는데 뭐하는 건지로 잘 모르고요. 처음엔 그랬어요. 안지도 얼마 안 되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괜찮긴 한데 딱히 애들이 좋아하고 인기 끝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거기서 진로상담 그런 거 하면 나만해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애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지루하다, 뻥한 얘기 한다, 뭐하러 하나, 귀찮다, 차라리

난 학원을 가겠다 그런 애들도 있고.. 진로상담 해줄게 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구요... 놀거리가 있다 재밌다 그러면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그런 식일 것 같아요.. 저도 진로를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좀 꺼려져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조금 그래 보여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⑥ 진로개발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 활성화 필요

이와 더불어 다양한 청소년이 마음 놓고 진로 개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인 안전망(중·장기 쉼터 등)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이 쉼터 말고 이전에 장기 쉼터에 있었어요. 거기서 한 1년 넘게 있다가 나와서 또 1388 가서... 그땐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연락해서.. 연결된 장기 투숙 쉼터가 있고요. 거기 가서 기간이 다 끝나서 이 쪽 쉼터를 연결해 준거예요. 쉼터 가면 일단 잠이랑 먹을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진로준비 시키는 거.. 학교나 공부나 그런 것... 제가 학교를 안 가고 그랬는데 거기 쉼터 선생님이 혼내고 그래서 겨우 중학교를 졸업해서...그게 도움이 된 거 같아요..안 그랬으면 중학교 끝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⑦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진로연계망 수립

또한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관한 진로연계가 실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기술 교육을 통한 취업 뿐 아니라 창업, 귀농을 원하는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저는 농촌에 가서 일해보고 싶어요. 예전부터 농사 짓는 게 궁금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귀농 카페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흐지부지 됐어요. 길이 없더라구요. 내가 관심 있는 데랑 연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면 연결을 잘 시켜줬으면 해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생소한 일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많고... 청소년들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생각의 폭이 넓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중에 자기적성을 찾아 나서는데 이것저것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게 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같이 농촌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무작정 농촌을 갈수는 없잖아요. 농고 이런 곳도 있기는 한데 학교 그만둔지 좀 되서 가기도 좀 그렇고 경쟁률도 심해요.. 사실 농고도 거의 없고 그래서요.”

⑧ 학교중단청소년 특성에 맞춘 언제든 원하면 공부할 수 있는 곳에 대한 희망

또한 학교중단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유연한 형태의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자퇴한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따로 돈 들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처럼 1년 과정 이렇게 하면 우리는... 끈기가 없는 아이들은 못하니까요.. 자기가 와서 하고 어디까지 공부했으니까 다음에 또 와서 다른 것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해야 하는 건 한 번 그만두면 계속 못 하잖아요...”

⑨ 언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취업자립정보 요구

취업자립정보의 부족과 관련하여 언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취업자립정보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노력하지 않으면 취업자립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취업자립지원 또한 학교중단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하였다.

“ 내가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서 가입을 하고 선생님이랑 통화를 한 다기보다는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일일이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서 전화하기도 그렇고 집에 부모님 다 계신데 상담한다고 전화하고 있기도 뭐 하고요.”

“ 저는 다니고 있다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몇 년간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접해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먼저 찾고 싶었어요. 학교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못 찾겠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능준비만 하고. 집에 오면 부모님도 공부하라 소리만 하니까. 공부가 안 맞는 사람은 전혀 안 맞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일찍 나와서 찾아보겠다고 나왔는데... 사실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빼뚫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공부는 하기 싫었지만 원하는 걸 배우고 싶어서 나왔는데... 진짜 저 혼자서는 못찾겠더라고요. 처음 몇 달간은 괜찮은데 1년 지나니까 막 뭔가는 배우고 싶는데 그걸 못 찾겠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나이도 어리고 집에서는 그런 걸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학교나 나가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뭔가 배우고 싶기는 한데 못 배우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디서 뭘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모르고. 그런 걸 청소년들한테 좀

알려주고 배포해줬으면 좋겠어요. 직업전문학교 이런 데도 광고 같은 것을 많이 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가 있는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⑩ 취업자립지원기관 교육기간의 장기화 희망

기존의 취업자립지원기관의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런 학교에서도요... 1년이라는 기간이 배우는데 좀 짧은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후다닥 배워서 들은 거에 반도 모르는 거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예전부터 하던 것도 아니고 처음 접해보는 거라 그만큼 어렵고 색다른 게 많거든요. 이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꼭 1년이 아니라도 내가 적성이 맞으니까 더 배워서 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배우도록 기간이 더 길게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배워야 하니까 오래 하기 힘들까 봐요... 후다닥 취업해서 나가고 그래야 해요...”

⑪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

마지막으로 학교중단 청소년은 자신의 선택과 관련하여 사회가 인정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희망하였다.

“공부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렇게 직업학교나 다른 시설이나 좋은 곳 많잖아요. 사실 인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사회나 학교 같은 곳에서 애들한테 가르쳐줬으면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든 이렇게 찾아서 여기에 왔는데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은 깡패, 양아치,, 그런거나 하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나 하

고. 그런 식으로만 사니까...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다 다른 거 같아요... 그걸 알아 줬으면 좋겠어요...”

3. 소결

본 장에서는 사례조사를 통해 학교중단 청소년이 생각하는 취업, 자립과
관련한 경험, 취업자립 준비를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 청소년 취업자립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조사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서울·경
지지역의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및 이동쉼터, 소
년원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취업, 자립과 관련하여 학교중단 청소년은 자기관리의 어려움, 학
교중단 이후의 무기력감이 진로의식 무기력감으로의 연결, 앞으로 어떻
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진로계획 실천에서의 주도성 상실 등을 경
험하고 있었다. 긍정적 측면으로 이른 사회생활 경험으로 보다 성숙하는
측면을 지적하였으며, 기존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 기관이 어느 정도 순기
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방향과 오랜 고민기를 거쳐 자신의 미래
에 대해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깨닫고 있었으며 중요한 정보원으로
서의 인터넷과 주변인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취업자립 준비를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의지의 부족, 직업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이로 인한 제한, 진로탐색
및 진로개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제한, 기존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기
관에 대한 지식 및 홍보 부족, 진로체험에서 경험하는 사회의 차가운 시
선, 원하지 않는 취업교육을 받는 경우의 문제, 성인과 함께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의 어려움, 취업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건강이나 거리 등의 현실
적 제한을 경험하는 것 등을 들고 있었다.

셋째, 학교중단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도움이나 변화되었으면 사항으로 양질의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 직업훈련시설 커리큘럼의 다양화, 여성에 대한 고려 확대, 진로탐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취업자립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학교중단 청소년이 원하는 형태로의 시설·프로그램 변화 필요, 진로개발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 활성화,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취업자립방향 마련 필요, 취업자립정보에 대한 홍보의 확대, 취업자립지원기관 교육기간의 장기화,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 등을 들고 있었다.

Ⅵ. 정책제언

1. 실적적 개선방안
2. 정책적 개선방안

VI. 정책제언: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자립 지원 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자립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학교중단 청소년 현황과 학교중단의 영향요인 및 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둘째,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취업자립 정책 및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셋째,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의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중 취업자립에 관한 욕구, 실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사례조사를 통해 학교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률은 97.9%, 중학교 취학률은 96.2%, 고등학교 취학률은 92.5%이다. 2009년 현재 초등학교→중학교 진학률은 99.9%. 중학교→고등학교 진학률은 99.6%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졸업률은 초등학교 99.1%, 중학교 97.8%, 고등학교 94.7%(일반계고 96.4%, 전문계고 90.2%)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2.2%,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일반계고 3.6%, 전문계고 9.8%)가 5.3%에 달하고 있다. 2009년 현재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0.5%, 중학교 1.0%, 고등학교 1.8%(일반계고 1.1%, 전문계고 3.8%)이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결과 가정관련요인(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 가족구조상의 결손, 경제적 빈곤(낮은 SES),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지의 약화), 지역사회관련요인(중도탈락을 자극하는 유해환경, 대중문화의 확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미약, 또래집단의 부정적 영향), 학교관련요인(교육과정의 획일성, 학교공부의 지루함, 비민주적인 학교운

영, 구성원간 친밀감 부족, 입시·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이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학교생활에서의 좌절감 및 소외감,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업에 대한 동기·의욕의 부족, 학교 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쳐 학업(학교) 중단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학업(학교)중단 이후 적응유형에 따라 학업(학교)중단 청소년을 정착형(대안 교육 진학 및 진학 준비형, 취업형, 직업 훈련 및 취업 준비형, 복합 정착형), 비정착형(시설수용형, 방치비행형, 방치은둔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셋째,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학교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이라면,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학교를 떠난 학교중단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통합·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이며 현재 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만 15~29세의 취약청년 대상), 중소기업 인턴제(만 15~29세의 취약청년 대상),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상),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등 취약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빈곤 청년의 개인별 근로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자활인큐베이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학교중단 자립 정책은 범죄청소년을 수용·보호하여 비행을 단절·예방하며,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술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정규학교에서 이탈한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특별한 진로준비의 과정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불완전한 취업에 노출되어 있었다.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기관 소속유무에 관계없이 진로 준비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나 지도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섯째, 사례조사결과 학교중단 청소년이 지적한 학교중단청소년 취업자
립지원 개선방안으로는 양질의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 직업훈련시설 커리
큘럼의 다양화, 여성에 대한 고려 확대, 진로탐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취업자립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학교중단 청소년이 원하는 형태로의
시설, 프로그램 변화 필요, 진로개발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 활성화, 다양
한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진로자립연계방안 마련 필요, 취업자
립정보에 대한 홍보의 확대, 취업자립지원기관 교육기간의 장기화,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 등이었다.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진로자립 개선방안을 실
천적 측면(프로그램, 지역사회 측면)과 정책적 측면(법, 제도, 국가 측면)
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15) 이 장에서는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진로자립 개선방안을 실천적 측면(프로그램,
지역사회 측면의 노력)과 정책적 측면(법, 제도, 국가 측면의 노력)으로 나누어 제
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개선방안을 실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명확하게 구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경우에 따라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현장프로그
램은 물론, 지역사회, 국가정책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편의상 본
장에서는 프로그램,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개선이 모두 필요한 경우, 가장 우선적
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사항을 언급하였다.

1. 실천적 개선방안

1) 프로그램 차원의 개선방안

(1) 학교중단청소년 초기 개입 프로그램 강화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초기 개입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중단 청소년은 학교중단 후 자유를 만끽하는 기간을 거쳐 고민과 방황의 기간 후 적응 또는 비행 후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비교적 학교중단 지속기간이 짧은 거리 청소년의 경우 힘들다고 얘기하는 정도가 낮아 일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의 소지를 내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아직 그 어려움이 심화되지는 않았으나 거리 청소년들은 대안학교 청소년과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편견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었다.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거리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개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서정아·권해수·정찬석, 2006).

(2)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기관에서의 진로지원기능 강화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기관에서의 진로지원 기능 강화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진로지도는 크게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는 각급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동과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지도 서비스, 그리고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기관의 진로상담서비스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활동 이외의 학교중단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기관의 공간적, 정서적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쉼터나 1318 청소년안전망, 보호관찰시설이나 교정시설을 경험한 학교중단 청소년

년들에게조차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진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회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최동선·이상준, 2009).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기관이 학교중단 청소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그 이전에 실질적인 진로지원기능이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기관의 중요 업무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기관의 교사 및 상담자가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역할을 강화함은 물론 적절한 재교육과 보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서정아·권해수·정찬석, 2006).

(3) 전문화, 차별화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진로탐색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통한 학교중단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 강화이다. 이는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기관의 진로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차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할 수도 있지만 일선에서 직접 학교중단 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들도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가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프로그램은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 위해 학교중단 청소년의 개인, 심리, 기질적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김진화(2006)는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생활역량으로 ① 자기조절역량(감정조절기술, 신체관리기술, 시간활용기술, 합리적 소비기술), ② 자기성취역량(동기형성기술, 목표설정기술, 진로탐색기술), ③ 대인관계역량(표현기술, 경청기술, 관계형성기술, 갈등조절기술), ④ 공동체역량(매너기술, 봉사참여기술, 협력기술, 리더십기술), ⑤ 창의성역량(창의적 기획기술, 의사결정기술, 문제해결기술), ⑥ 상

황대처역량(휴대폰중독대처기술, 인터넷중독대처기술, 유해물질대처기술, 폭력대처기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9)은 가출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자활을 위해 ① 일상생활기술(의식주 관리 교육, 경제교육, 대인관계교육, 또래상담), ② 자기보호기술(건강관리, 신체보호), ③ 경제교육(계획적인 소비생활, 저축, 가계부작성), ④ 사회적인 기술(대인관계기술, 상황대처방법),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이용방법, 여가활동)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권해수 등(2009)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자립에 필요한 요소들로 ① 동기화, ② 경제교육, ③ 직업탐색, ④ 구직기술, ⑤ 대인관계기술, ⑥ 일상생활기술, ⑦ 결의 및 목표 세우기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학교중단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이 단순히 진로를 설계·탐색·준비하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기관이 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듈화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최동선·이상준, 2009).

(4)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1:1 멘토링 서비스 강화

다양한 상황에 있는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해 1:1 멘토링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서정아·권해수·정찬석, 2006; 최동선·이상준, 2009).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려움은 제한적 인적 네트워크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학교중단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에 관한 일상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1 멘토링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1:1 멘토링 서비스는 정규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을 대체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의 개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학업과 진로라는 핵심적인 주제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적극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계획과 그 실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멘토의 역할이며 관련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기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하여 멘토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인(현직자 및 퇴직자 포함),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의 멘토의 유형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최동선·이상준, 2009). 이러한 멘토를 통해 개별 학교중단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지원 정책에서의 사전 직무훈련과정 혹은 취업기초능력습득 과정 마련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에서 사전직무훈련(pre-internship)과정 혹은 취업기초능력습득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바이다. 학교중단청소년 그룹은 정규 학교로부터 이탈된 이후 기초학력, 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능력, 직업의식 등에 관한 교육으로부터 단절되어 왔다(변숙영·이숙영·이종범, 2009). 이런 상태에서 직업훈련이나 직장 체험을 통해 구직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직무역량의 부족으로 구직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인 취업준비에 들어가기 이전에 취업기초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사소통, 협조성, 자기표현력), 직업인 의식(책임감, 향상심, 탐구심, 직업의식, 직업관), 기초학력(읽기, 쓰기, 계산·수학적 능력, 상식 등), 직장 매너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초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드림존프로그램에서 취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인원과 프로그램 제공 방식에 한계가 있어 집중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실습 과정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6) 직업훈련기관 시스템 개선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이 요구된다. (가) 직업전문학교에서 수강가능한 과목을 다양화해야 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맞추어 직업전문학교에서 다양한 전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직업전문학교는 청소년의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교육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장비 설치와 인력 고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적 문제로 인해 추가 장비 설치와 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교육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교사의 재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직업전문학교의 입학자격조건을 해당지역 거주자가 아닌 타지역 거주자로 확대하고 희망자의 경우 전원 기숙사 생활이 가능토록 하여 원하는 청소년이 지역에 구애됨 없이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나)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이 많음에도 국비지원 직업전문학교가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학교중단 청소년이 사설 직업훈련학원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고자 할 때 수업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다) 직업전문학교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 청소년이 소외되거나 추가적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전공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정책이 IT 산업이나 공업 등을 위주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 있지만 문화콘텐츠나 예술활동이 가지는 세계적 의미를 살펴볼 때 직업교육의 영역을 이러한 산업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취업을 원하는 학교중단 청소년이 정규학력

을 취득하는 중요한 통로인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화 하여야 한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정규학교를 그만두었을 뿐 배움에 대한 열망은 정규학교 청소년 못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졸업만이 아닌 추후 사회생활과 상급학교 진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보충, 심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직업전문학교 수용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있어 직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직업전문학교 인원의 증대, 사설 직업훈련에 대한 국비지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직업전문학교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원하는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서정아·권혜수·정찬석, 2006).

(7)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장기화

학교중단청소년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1박 2일로 진행되며, 평균 수개월 이내로 종결된다. 하지만 학교중단청소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1년에서 3년까지 취업 자립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캐나다의 Skill Link Program의 경우 총 4단계로 이뤄지며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1단계는 취업능력훈련으로서 생활능력과 기초능력을 교육받는다. 1주 30시간씩 24주간 교육을 풀타임으로 받는다. 2단계는 사회봉사를 통한 취업능력을 배양하는 단계로 공익사업 등을 통해 일의 경험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3단계는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단계이다. 3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 단체, 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제적으로 일을 하며 경험을 쌓는다. 마지막 4단계는 직업체험인데, 일정 회사

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조금의 지급 기간은 평균 6개월이며 최대 지급 기간은 1년까지이다. Skill Link Program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중단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3년의 지원이 필요하며, 각 단계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당이 지급됨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에 몰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차원의 개선방안

(1) 학교중단 청소년 전용공간 및 시설 확보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또는 상설 이용 가능한 시설을 다수 확보해야 한다. 학교중단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여유시간을 활용하고 학습지원이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그들만의 소통공간이 필요하다. 단 기간에 전용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기존 청소년수련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오전시간과 오후 2-3시까지 학교중단 청소년 이외에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 이용자가 별로 없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유희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관내에 위탁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 등을 유치하여 학교중단 청소년이 학업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오승근, 2009).

(2) 학교중단 청소년의 지역사회 아르바이트, 취업 알선 체계 강화

학교중단 청소년의 안정적인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은 물론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지원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지원기관과 고용지원센터 등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통합적 아르바이트 정보관리·연결·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나 위 기구가 청소년이 주로 아르

바이트를 하는 업체(패스트푸드점, 대형할인매장 등)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업무계약을 통해 공급화 수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직하다(서정아·권해수·정찬석, 2006). 또한 이러한 경험이 이후 진로개발에 좋은 학습경험이 되게 해야 한다. 학교중단 청소년의 학업·일자리 병행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보급도 고려해 볼 수 있다(최동선·이상준, 2009).

(3) 지역사회 민간기업 및 단체의 참여 및 지원

학교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연계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학교중단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거나 그들이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원학교 등을 다니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참여자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형성이다. 결속력 있는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원학교행정과 학교지도인력 간 협의, 고용노동관청과의 좋은 관계형성, 지속적으로 직업을 준비하는 대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들, 기업들, 정부의회, 경제지원 기관들, 공공단체장들과의 긴밀한 접촉 등이 성공적인 취업자립지원프로젝트 수행의 중요요소이다(이민희, 2009)

(4) 실력에 기반한 취업 풍토의 조성: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제한의 철폐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임금 및 채용 승진상의 차별과 취업기회제한이 개선되고 실력에 기반한 채용, 승진, 임금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이 임금 및 채용 승진상의 차별은 물론 취업기회제한 등의 차별을 받고 있으며(장석민, 2002)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회변화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5) 지역사회 인사를 활용한 직업역량개발 전문 인력풀 구성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기관에서의 취업자립훈련 성공 여부는 재정적 지원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에 있다. 하지만 교육 내적으로는 무엇보다 이러한 직업훈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느냐가 취업자립지원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각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원 학교 등 학교중단청소년 유관기관은 학교중단 청소년의 직업역량개발을 위해 지역사회인사를 활용, 다양한 직업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기관 운영 주체는 이들을 시간제 강사로 운영하여 이론과 실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주고 가능한 많은 학교중단 청소년이 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유휴인력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이민희, 2009).

(6) 지역사회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학교중단 청소년관련기관에서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자립능력을 개발하는 목적은 장차 이들의 취업을 돕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이 과정에서 인턴십을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 종류의 기업이나 사업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영국의 경우 정부가 청소년에게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도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인턴십 과정 이후에도 같은 기업이나 업체에 취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혹은 직업전문학교 등도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에 다양한 직종의 기업이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제휴하여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하여 질 높은 직업훈련의 기회를 중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인턴십을 마친 후에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학교는 해당 지역사회기업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안학교 청소년과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 직하다(이민희, 2009).

2. 정책적 개선방안

(1) 학교중단 청소년 교육, 직업, 진로 정보망 강화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해 전반적 교육, 직업, 진로 정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주변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 직업, 진로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다. 인터넷을 주된 정보수집 경로로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중단 청소년들에게 취업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 따라서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보망을 체계화하고 최신 정보 콘텐츠, 특히 학교를 중단한 이후에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에 관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망은 수요자 맞춤형이어야 하며 분석, 관리 등에서 학교중단 청소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최동선·이상준, 2009).

(2) 기존 학교중단 청소년 관련정보의 홍보강화

학교중단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어디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한동안 고민하고 방황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황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문제 청소년의 길로 빠지게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체계나 정보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구축된 내용들을 누구나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다. 학교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중단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기존의 학교중단 청소년 정책과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다(서정아·권혜수·정찬석, 2006). 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활발한 홍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가능한 정보창구가 단일화 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협의체를 학교중단 청소년 관련 업무 전반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니트족일지라도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점(변숙영·이수경·이종범, 2009)에 착안하여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포털사이트나 게임 사이트 등에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책·프로그램·취업자립지원정보나 관련정보망의 링크를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기조 및 서비스의 다양화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상담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 운영 기조를 다각화해야 한다. 현행 학교중단 청소년 정책의 운영기조를 보면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해 학교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후 대책에 치중하고 있다. 상담 프로그램 위주의 대책 이외에도 청소년 수련활동과 체험을 통한 자립의식 제고, 지역사회 외부 자원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 학교중

단 청소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오승근, 2009). 전통적인 진로상담의 방법보다는 체험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일부 학교중단 청소년은 전형적인 상담방식을 ‘굳이 받을 필요 없는’ 서비스로 인식(최동선·이상준, 2009)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빈곤가정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학교중단 청소년을 인터뷰한 서정아·권혜수·정찬석(2006)은 학교중단 청소년 중 의외로 많은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학교를 중단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부의 양극화 속에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교육이 그 핵심 고리로서 부각되는 현실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청소년은 단지 학교가 싫어 정규학교를 떠난 청소년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중단 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대안학교 진학이나 사교육, 원하는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사교육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진로계발을 위한 실질적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빈곤으로 인해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개별적인 과정을 밟아 나갈 경제적 지원의 부족으로 중요한 시기에 배움이나 기술 습득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쉽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고 공부 혹은 기술습득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서정아·권혜수·정찬석, 2006). 현재 학교중단 청소년이 경제적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대부분의 사설 직업훈련기관은 높은 교육비용으로 인해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수시입학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이 한정되어 청소년이 일정시기를 놓치면 입학에 위해 최대 1년여를 기다려야 하며 비교적 연령이 어린 만 15세-19세 청소년은 나이제한으로 인해 공정한 교

육기회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빈곤으로 인하여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이 취업을 위한 기술습득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5)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개별적, 단계적 취업지원 정책 마련 필요

기존의 취업자립지원정책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지원욕구와 효과적인 취업지원방법이 다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연령대만을 한정하여 보더라도 해당 청소년이 학교를 중단하였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지, 대학교를 졸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수준, 주안점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정책 대상인 학교중단 그룹은 그 개별성에 있어 보다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교국가차원에서 이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고려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졸과 대졸 그룹은 정규 학교를 졸업한 실직자 그룹에 해당되지만, 학교중단 그룹은 학력 취득과 취업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 단계적 취업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6) 학교중단 청소년 기본학력 증진 정책 수립

학교중단청소년의 기본 학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낮은 학력은 취업 시장 진출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이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도 기본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은 학교에서만 가능하고,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는 민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정고시반에 맡겨놓은 수준이

다. 학교중단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높고, 기본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지원 대안학교 등 정규학교 이외의 별도의 교육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7) 부처차원의 취업지원정책의 체계적 연계 시스템 구축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의 체계적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각 부처의 취업 지원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중단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 이용성이 낮은 편이다. 학교중단청소년은 학력, 직업훈련, 직장 경험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교중단 직후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 훈련, 고용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니트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중단 청소년에게 복교, 교육,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지원, 기초직업훈련, 직업교육 직장체험 등이 패키지화되고, 진로종합센터(가칭)를 중심으로 대안교육, 직업훈련기관, 지역사회 기업 협의회, 전문상담기관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진로종합센터(안)는 고용지원센터, 두드림존, CYS-Net의 허브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진로종합센터(안)의 주요 기능은 학교중단청소년에게 개별상담자를 지정하여 취업 자립의 단계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고, 취업 준비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학교중단청소년의 자립 의지 및 취업 의지를 동기화시키는 일 등이다.

(8) 직무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최저 임금제 적용

사전 직무훈련과정과 프로그램 참여 과정 동안 최저 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취업 지원 정책 사업 중에서 훈련생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뿐이었다. 학교 중단청소년의 학교중단 및 미복학 사유로서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중단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진로개발훈련과정 및 직업 체험 과정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수당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인센티브인 도시에 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 청소년들의 생활비로 쓰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자활인큐베이팅 사업도 수당의 형태는 아니지만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예산이 보조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9)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지원 정책 효과성 평가 지표 마련

취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성과분석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취업과 직업 수행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종료 직후의 프로그램 만족도뿐만 아니라 6개월 이후, 4년 이후 추적 조사를 통해 고용, 수입(임금), 복지 급여 등의 측면에서 장기 영향력이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개별프로그램의 장기 영향력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 단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중단 직후 취업에 성공하는 것과 대안교육 등을 통해 중단된 학업을 지속한 후 취업하는 것의 결과가 비교되었으면 한다.

(10)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모든 정책의 수행이나 프로그램의 진행에는 재원이 있어야 한다. 보통 공공부문의 예산은 관계법령을 근거로 예산이 지출된다. 2006년부터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 2008년 당시 노동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시행되고 2010년 10월에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비록 미흡하기는 하나 학교중단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6년 하반기에 실시된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사업’도 이 법에 근거하여 학교중단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재원의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 아동·청소년관련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의 사회공헌기금, 제3부문에서의 지원 등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려는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재원마련의 근거를 명시한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정이 시급하다(이민희, 2009).

(11) 폴리텍(POLITEC) 대학이나 전문대학 진학 가능한 학력인정

현재 정규학교중단 청소년이 주로 속해있는 대안학교나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정규학교로의 학력인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직업전문학교와 같이 재학 중인 학교중단 청소년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직업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설립과 운영의 주된 목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기초교육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직업전문학교 등이 정규학교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더라도 이들이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 또 더 많은 직업관련 전문적 지식을 쌓기 위해 2년제 폴리텍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입학할 경우 정규학교 졸업 학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학력인정의 효과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전문대학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청소년 및 청소년실업을 줄이는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이나 진학의 길을 잃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2) 청소년만을 위한 직업훈련 인턴십종합센터의 개설 및 운영

현재 대안학교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소년원학교 등은 청소년들의 직업역량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을 개별적으로 찾아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의 직업전문학교 또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가능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이 입학하기 어려우며 입학하더라도 성인 직업훈련자들 위주의 훈련내용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만을 위한 취업지원, 직업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 전담 인턴십종합센터의 개설 및 운영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 도시속작은학교는 청소년을 위한 인턴십센터를 따로 두어 잘 운영하고 있어 모범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중단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인 인턴십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업훈련인턴십에 관한 모든 관련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현재의 대안학교종합센터 내에 ‘청소년인턴십종합센터(가칭)’을 부설로 설치하여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강사들과 인턴십 대상 업체들을 각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원학교 등에 중개하며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등록 및 취업 연계 등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이민희, 2009).

(13) 지원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책 마련

학교중단 청소년 사례연구를 위해 담당자를 만나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정규학교 교사에 비해 학교중단 청소년을 지원하는 직업전문학교, 대안학교, 청소년수련관 등의 지원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사와 같은 사회적 신분보장

이나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며 과중한 업무 속에서 사명감만으로 학교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고 심한 경우 자신의 사재를 털어 혹은 지역사회의 후원을 힘들게 받아 학교중단 청소년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학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중단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에도 전문성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나 안정성 보장 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이렇다 할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에서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교사, 지도자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교중단 청소년을 지원할 때 학교중단 청소년도 보다 질 높고 안정적인 취업자립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학교중단청소년 지원인력의 단계적 처우개선, 인력추가 보조, 재교육 지원 등에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2009).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프로그램 「해밀교실」 사업보고서. 광주: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김명자·권해수·이문화·이자영·이수림(2004). 학교밖 청소년 욕구 조사 결과. 학교밖 청소년 길찾기.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태혁(2004). 직업전문학교 재학 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 비효율성 요인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영(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삶과 문화. 서울: 한국학술정보.
- 노경란 · 김미경 · 변정현 · 이효남 · 오성복 · 전연진 · 정명진 · 조규필 (2008).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노경란 · 현영섭 · 박소연 · 이효남 · 변정현(2007).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개정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박현선(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53(5), 75-104.
- 변숙영 · 이수경 · 이종범(2009).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보건복지가족부(2010).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서은경 · 윤옥경(2008). 퇴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1호, 129~157.
- 서정아 · 권해수 · 정찬석(2006).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손승영 · 전효관 · 정경희 · 주은희 · 최원기(2003). 학업중퇴자 현실과 대안. 서울: 학지사.
- 안현의·이소영·권해수(2002).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오승근(2009).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의 비판적 고찰: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21.
- 오현애(2002). 학교중퇴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학교중퇴 청소년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상·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18(2), 41-64.
- 이민희(2009).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석민(2002).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진로문제와 지도 대책.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최동선·이상준(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2).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4). 학교밖청소년 길찾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판식 및 학술세미나 자료.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6).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집.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부·교과부 합동 대책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6월 23일 보도자료. [Online]. 2010.10.15 검색. <http://www.mw.go.kr>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해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상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운정·안소연·윤소윤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해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 / 박영균 · 이상훈 · 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 · 이승현 · 권수진 · 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 · 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 · 유영준 · 이명희 · 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 · 최수정 · 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교력 / 임영식 · 조아미 · 정경은 · 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Hernan Cuervo · 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 · 장지연 · 윤자영 · 성재민 · 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 · 김성경 · 남미애 · 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분용 · 박제일 · 이은경 · 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 · 권해수

■ 용역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운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란·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윤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I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II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지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V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니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
옥·이은경·최순중·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장근영·임영식·정경은·조아미·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연구보고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인 쇄 2010년 12월 24일

발 행 2010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빗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17-2